

尹대통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논의”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
“2000명은 정부의 과학적 산출
집단행동 아닌 근거 제시하라
국민 불편 속히 해소 못해 송구”
조건부 협상 가능성은 내비쳐
국민·의·정 협의체 구성 제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과 관련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8면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은 정부가 오랜 논의를 거쳐 과학적으로 산출한 최소 증원 규모”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통일된 안을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2월 전공의 이탈 이후에도 증원 규모만큼은 2000명에서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고 했던 기존 방침보다는 전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안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다짐한 만큼 기존의 강고한 의료 개혁 의지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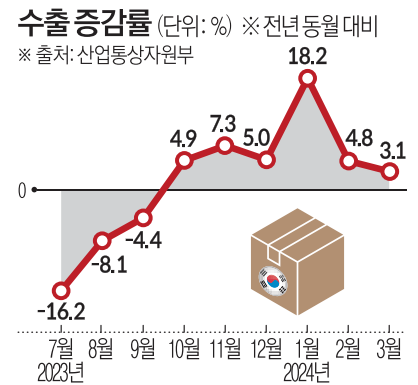
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며 의료계에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다.
의료 차질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증폭하고 있는 데다, 4·10 총선이 임박하면서 ‘2000명 증원’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여당 내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정 갈

등으로 팍 막힌 현 국면을 돌파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개혁의 정당성에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만, 숫자에 집착한 ‘불통 이미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여당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그간 37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는 점을 구체적 날짜를 들어가며 설명한 것도 그간 소통 행보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을 향한 호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결국 ‘통일된 안’을 내놓으려면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화적인 제스처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51분간 이어진 담화에서 상당 부분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데 할애했다. 지금까지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 없이 증원 규모를 제시해왔다는 비판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평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수출 6개월째 플러스… 반도체 21개월만에 최대

3월 수출 작년보다 3.1% ↑
전체 수출액 565억6000만달러
반도체 117억弗… IT 동시 증가
선박 102% 늘어… 車 5% 감소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다른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3월 수출액은 565억6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늘어났다. 월 수출 증가율은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6개월 연속으로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IT 수요가 급증했던 2022년 수준까지 회복됐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등 IT 전방 산업의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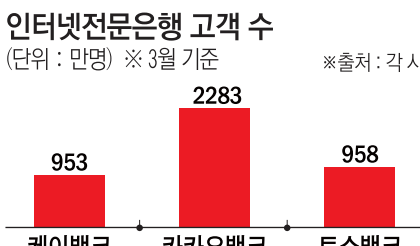
확대 흐름 속에서 낸드를 중심으로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고 수출 물량도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수출액 증가로 이어졌다.
4대 IT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는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 품목 수출이 동반 증가했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24.5%) 수출은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으로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5.5%) 수출도 3개월간 이어진 감소세를 끊어내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친환경 중심 주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3월 선박 수출은 102.1% 증가해 8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국내의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3월 자동차 수출은 61억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 감소했다. 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2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지역별로는 양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했다.
3월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은 각각 105억2000만 달러, 109억1000만 달러로, 각각 작년 동월보다 0.4%, 11.6%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세가 계속됐고, 3월 대미 수출액도 역대 3월 기준 최대였다.
대중 수출도 회복세지만 강한 대미 수출 호조세가 이어짐에 따라 3월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보다 많았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었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작년 12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20여 년 만에 나타났다.
3월 수입액은 522억8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3% 줄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 흐름에 따른 원유(-12.8%), 가스(-37.4%), 석탄(-40.5%)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08억8000만 달러로 24.4%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 감소에 끼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비(非)에너지 제품 수입은 414억 달러로 작년보다 8.5% 감소했다. 3월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자산 100조, 이용자 4200만명 인행 ‘손 안의 은행’ 시대 열었다

판을 바꿨다. 인행 출범 7년 ①
혁신적 서비스로 빠르게 흑자 전환
여·수신 탄탄… ‘금융권 공룡’ 성장
기존 은행은 창구 줄이고 전략 수정

모두가 안 될 거라 말했다. 은행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시중은행들은 코웃음 쳤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사무관조차 회의적이었다.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예상은 빚나갔다.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인터넷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영업점 중심 전략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범 7년 만에 인터넷은행의 고객 수는 4200만 명을 돌파했다. 금융권의 물을 흐릴 것이라던 미꾸라지가 시장을 뒤 흔드는 메기가 됐고, 이제는 공룡으로 성장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은행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관련기사 5면
2024년 4월 인터넷은행이 출범 7주년을 맞는다. 사업 초기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비중을 지켜나갔던 인터넷은행은 고금리 수신상품과 자금 유치에 힘썼다.
여·수신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갖춰지면서 외형적으로 수직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은 자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이 54조4800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 총자산은 25조7400억 원, 케이뱅크의 총자산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 수도 4200만 명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2283만 명, 케이뱅크는 953만 명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2월 현재 958만 명이다.
부실률이 높은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율 때문에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3년 만인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마이너스(-) 1045억 원, 2018년 -210억 원이었지만, 2019년 13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549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출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7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달성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김범근 기자 nova@

반도체株 ‘형 만한 아우’… 소부장·중소형ETF도 훈풍

삼성전자·하이닉스 낙수효과

직장인 최모(33) 씨는 요즘 반도체의 ‘반’자만 들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슬금슬금 오르는 주가 때문이다. 지난 1~2년간 수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GST 등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 5000만 원가량 투자했다. 올해 주가 상승으로 평균 수익률이 37%로 급등했다. 최 씨는 “지난해만 해도 주식도, 부동산도 투자를 잡은 것 같아 답답했었다”면서 “‘존버’(버티기)한 보람이 있다. 다른 반도체 중·소형주에 추가 투자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연일 52주 신고가를 갈아 치우는 가운데, 이 대형사들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납품하는 이른바 ‘반도체 소부장’ 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같은반도체 업종 내에서 아우(소부장주)가 형님(대장주)을 따라가면서 질주하는 형세다.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 반등 국면에서는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소부장주의 반등 폭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중소형 반도체주에 개미들 몰린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반도체 장비업체인 테크윈의 수익률은 202%에 달한다. 반도체 장비 관련 중 소형주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테크윈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HBM용 ‘큐브프로버(CubeProber)’를 개발한 곳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낙수효과를 예상하고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삼성전자

시총 작은 중소형주 반등폭 커

HBM 장비업체 테크윈 202%

필옵틱스·한미반도체 10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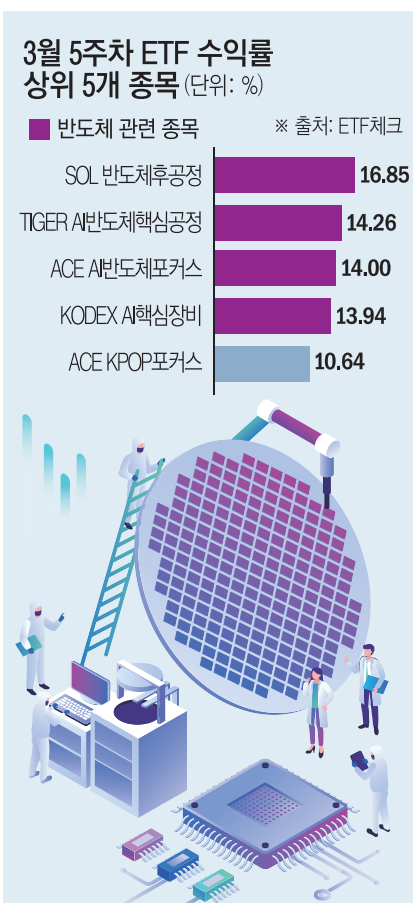
전문가 “시장 업황에 운명 좌우 계약·실적 따져야 리스크 줄어”

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장 중 19만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글라스관통 전극 제조(TGV) 양산 장비 공급에 성공한 필옵틱스도 1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HBM 제조용 TC 본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역시 1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TC 본더는 가공을 완료한 웨이퍼와 칩을 열 압착 방식으로 부착하는 장비로, D램을 적층하는 HBM 제조에 필수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

큐알티(112.09%), GST(71.51%), 로체시스템즈(68.22%), 와이아이케이(47.24%), 이수퍼타시스(43.63%), 리노공업(26.17%), HPSP(21.09%) 등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세다.

소부장 종목들을 한데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 자금이 쏠리고 있다. 코스콤ETF채크에 따르면, 지난주(3월 25~29일) 전체 상장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종목은 ‘SOL 반도체후공정’으로 16.85% 상승했다. 올해 2월 상장된 SOL 반도체후공



정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한 차례 더 세분화해 공정별로 투자한다.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14.26%)’과 ‘ACE AI반도체포커스(14.00%)’, ‘KODEX AI핵심장비(13.94%)’도 ETF수익률 2~4위를 차지했다.

◇소부장, 공급계약 등 성과보고 투자해야=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의 운명이 반도체 업황에 달렸다고 본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의 3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1.8달러로 집계됐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의 2월 평균 고정거래가격도 전월과 같은 4.9달러를 유지했다.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요한 HBM반도체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핵심 부품으로 HBM이 주목받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HBM 소부장 테마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했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부장 중에서도 HBM핵심 밸류체인 내 경쟁우위를 확보한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지속해서 양호할 것”이라며 “HBM 수출 향상 관점에서 패키징 테스트 단계의 소모성 부품인 소켓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 증시 관계자는 “소부장 업체가 특정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하는 등 구체적인 실적 소식에 따라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다면 소부장주는 대형주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스는 D램 가격 상승률이 올해 1분기 최고 23%에서 2분기 3~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스마트폰 수요가 유의미하게 회복되지 않았고, 서버 시장에서도 ‘DDR5’로의 세대 전환이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윤혜원 기자 hwyoon@

車 수출 선방… 월 70만대 판매

지난달 내수 16% 줄어 12만대

해외 시장 59만대로 소폭 감소

국내 완성차 5사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 선방을 통해 월간 70만 대 판매를 유지했다.

1일 각사 판매실적 발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KG모빌리티(KGM)·르노코리아자동차(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5사는 지난달 내수 12만289대, 수출 58만9777대 등 총 71만381대(특수차량, CKD 포함)를 판매했다. 수요 부진과 비수기가 겹친 내수 시장에서는 큰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이 판매량을 유지하며 실적 감소폭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14만814대 대비 15.6% 줄어들었다.

현대차는 올해 3월 내수 시장에 6만2504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1% 줄어든 판매량을 기록했다. 팰리세이드, 싼타페 등 레저용차(RV) 모델은 2만1979대 팔렸으며 그랜저, 쏘나타, 아반떼 등 세단이 1만5302대 판매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5298대), GV80(4304대) 등이 실적을 이끌며 총 1만1839대 판매했다.

기아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 4만9006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7.6% 줄어든

판매를 기록했다. 내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8974대 판매된 쏘렌토였다. 이 밖에 카니발(7643대), 스포티지(6736대), 셀토스(4748대) 등 RV 모델이 3만994대 판매되며 63.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기간 한국지엠의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0% 늘어난 2038대를 기록했다. 특히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1485대 판매되며 실적을 이끌었다. 이 밖에 트레일블레이저가 416대 판매되며 2개 모델이 내수 판매의 93.2%를 차지했다.

KGM은 지난달 내수 시장에 4702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47.2% 줄어든 실적을 나타냈다.

르노코리아는 3월 한 달간 내수 시장에 2039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 줄어든 판매를 기록했다.

국내 완성차 5사의 3월 해외 판매는 전년 동월 59만1080대보다 소폭 줄어든 58만9777대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현대차가 었갈렸다. 현대차는 전년 대비 0.7% 감소한 30만6628대를, 기아는 1.2% 줄어든 22만2705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했다. 르노코리아는 60.8% 줄어든 5094대를 판매했다. 판매 실적이 가장 크게 줄었다. 반면 한국지엠과 KGM은 각각 26.3%, 25.7% 늘어난 4만9350대, 6000대를 수출했다. 이만재 기자 2mj@



건강한 결심을 시작한
당신의 저력에 보험의 능력을

현대해상 간편건강보험

간단한 질문으로 간편 가입
3대 주요 질병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특약)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진단(특약): 가입 금액 한도 내 최초 1회한 지급
암, 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수술(특약):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가족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15205호(2024.02.01~2025.01.31)

“대화 무의미” 날 세운 의협… “동네병원도 단축진료 시작”

의료계 ‘尹 담화’ 반발 고조

의협 비대위 “의대증원만 반복 해결 실마리 기대했지만 실망 추가 반박·논평할 이유 없다”
前의협 회장 “권력 횡포” 비판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현재의·정 간 대치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됐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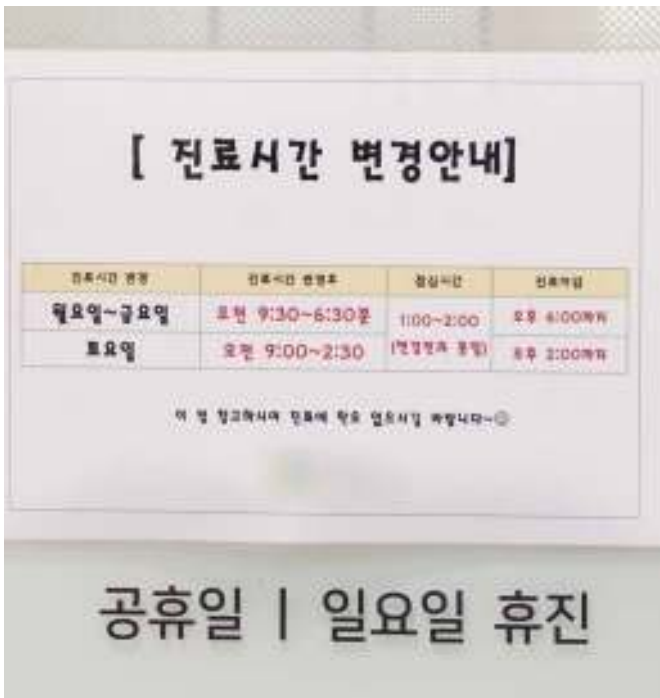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의·정 대치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발표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료계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던 시간이었다. 환자와 의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되면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해법이 아니라고 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만 반복돼 답답하다”고 했다.

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



김성근 의협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왼쪽). 개원의들도 4월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1일 서울의 한 의원에 진료시간 변경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했다는 언급에 대해선 과학적이지 않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과학적 근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여러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추가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이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각 직역에서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다. 새로운 말이 없기 때문에 논평할 것도 없다는 뜻”이

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실망하는 의사들도 많았다. 한 개원의사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했다. 내 말이 맞으니 잔말 말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 발표 내용은 이미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날 SNS에 “예상했던 대로 몰려섬이 없다. 그런데 팩트마저 또 거짓 주장을 했다. 의사 숫자가

OECD보다 부족한 데 의료수가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고, 왜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인지 말하지 않았다. 의사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에 환경에 따라 적정 의사 수가 달라진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이유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옳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개원의

전공의 빈자리 메운 의대 교수 “피로 누적… 주 52시간만 근무 응급·중환자 진료 외 진료 축소”
개원의협 “참여규모 더 커질 것”

사는 “의사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 필수 의료 확대와는 별개 이야기다. 돈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닌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의대 교수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이날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면서 주요 병원의 외래 진료가 축소됐다. 이날 충남대병원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실망스럽다.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응급·중환자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축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동네 의원들도 ‘주 40시간 진료제’에 동참하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협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하자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따를 것 같지는 않다”면서 “동네 병·의원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다. 참여 규모가 점점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밧줄 잡은 제조업, 밧목 잡는 부동산 높에 빠진 중국경제 ‘오르락 내리락’

제조업, 반년 만에 경기확장 전환
중경제 모멘텀 개선 기대하지만
부동산 위기 금융권 확산 경고음

중국 경제가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제조업 부문은 회복 모멘텀을 구축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헤어날 조짐이 없다고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달보다 1.7포인트 상승한 50.8을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PMI가 경기 확장과 수축을 가르는 기준인 50을 넘어서는 것은 반년 만에 처음이다. 또 해당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인 50.1을 크게 웃돌았으며, 지난해 3월 51.9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1~2월 산업생산이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데다,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최근 수치는 중국이 부동산 불황, 소비자심리 침체,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음에도 중국의 산업 엔진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부문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인다”며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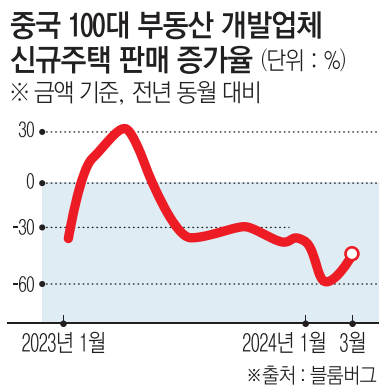


정 지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강세를 유지한다면 경제 모멘텀이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부동산 부문은 좀처럼 불황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 3월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규주택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3580억 위안(약 72조 원)을 기록했다. 2월 60% 감소에 이어 부진이 지속된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중국의 신규주택 판매량이 수요 약화로 5~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전 0~5% 감소에서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이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매출 기준 중국 최대 주택 건설업체였던 비구이 위안(영문명 컨트리가든)은 최근 복잡한 채무 조정 작업으로 인해 시간이 더 필요하며 연례 실적 발표 마감일



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한때 부동산 개발 상장사 가운데 가장 컸던 완커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46%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추정치를 큰 폭 밑돈 것이다. 1991년 상장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문제는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장기 침체로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서, 소방수 역할을 맡은 중국 대형 국영은행들의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공상은행(ICBC)은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부문 부실 채권이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부동산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부문 중 가장 높았다. 교통은행은 부동산 부실채권 비율이 2022년 말 2.8%에서 작년 말 4.99%로 급등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 잔액은 감소했지만, 부실 대출의 선행지표인 특별 대출이 23%나 증가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정보보호 R&D 예산 22% 증액”

과기정통부, 신규과제 공모
사이버보안, 국가안보 핵심 부상
국제공동연구 등 총 1141억 책정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지능화되자 정보보호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R&D 예산을 전년 대비 22% 늘린 1141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에 대한 공모 절차를 이날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세계적 수준의 보안 기술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국과의 공동기술 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등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근래 수요가 급증한 AI·네트워크 보안 및 공급망 보안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진공동연구형에 33억 원을 투입한다. 선진공동연구형은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선도국 대학·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관이 최소 1곳 이상의 해외 대학·연구소와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AI 기술 기반 취약점 탐지 △6G·자율주행차 무선통신(V2X) 보안 등 국내 독자 개발 시너지도가 높고 기

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 공동연구 필요성이 큰 4개 과제를 지원한다.

인력파견형 과제에는 12억 원을 투입한다. 인력파견형은 사이버보안 분야 세계 유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파견되는 인력을 선발 및 관리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기관을 통해 인건비, 체재비, 항공료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우수 인재들의 연구역량 증진 및 해외 네트워킹을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호 기술개발과 취약점 대응 및 신산업 융합 보호 기술개발에는 각각 104억 원·91억 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호 기술개발 사업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AI 모델 취약성 분석·평가, 이동통신 환경에서 정보유출 방지 등 디지털 심화 시대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AI·데이터·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취약점 대응 및 신산업 융합 보호 기술개발 사업은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융합보안 및 공급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국가간 사이버전이 본격화되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사이버보안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재들이 세계 최고의 기관과 함께 연구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나리 기자 nari34@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금리 경쟁력·간편한 앱… ‘금융 게임체인저’ 된 카·케·토

❶ 뒤통수 은행 패러다임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7년 만에 기존 은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다. 사업 초기 스타트업 이미지에서 지금은 1000만 고객을 앞세운 슈퍼 애플리케이션(앱)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기존 은행들을 긴장시키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은행 3사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5대 금융지주 모두 혁신 전략 일환으로 슈퍼앱을 앞다퉈 출시하고, 환전 수수료 무료 같은 혁신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은행은 ‘넵사벽’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3개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도약 준비 만기 통념 깬 ‘바로 이자받기’에 환전수수료 면제까지 변화 돌풍 ‘금리맛집’ 소문에 대한대출 흡수

(KB스타뱅킹·신한 SOL뱅크·하나원큐)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총 2810만 4690명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667만 8987명보다 800만 명 가량 적은 수치다.

◇발목 잡았던 ‘규제’ 없애자 성장=시중은행들은 과거 인터넷은행을 경쟁상대로 느끼지 못했다. 사실상 독과점인 금융 시장에서 인터넷은행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규제 탓에 인터넷은행은 출범 초기 부진했다. 사업 초기

에 지속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였는데, 금융과 산업자본의 융합을 제한한 금산분리 제도가 걸림돌이었다.

당시만 해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었다. 출범 당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KT는 케이뱅크 지분 8%를 보유한 채 출범 준비를 했다. 2019년, 금산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인터넷은행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면서 경영 불안정성을 야기했던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완화했다.

◇바로 이자받기부터 환전 수수료 면제까지 ‘금융혁신’=규제완화와 함께 인터넷은행의 혁신도 시장을 뒤흔들었다. 인터넷은행은 수직적인 의사결정 대신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한다. 개별 팀 단위로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소통을 통해 속도감 있게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결과는 혁신 서비스로 이어졌다. 인터넷은행은 예금 이자를 미리 제공하는 ‘먼저 이자 받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자는 만기에 받아야 한다는 통념을 완전히 깨버린 금융혁신 사례다. 먼저이자 받기 예금의 경우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먼저 받은 이자를 출금한 후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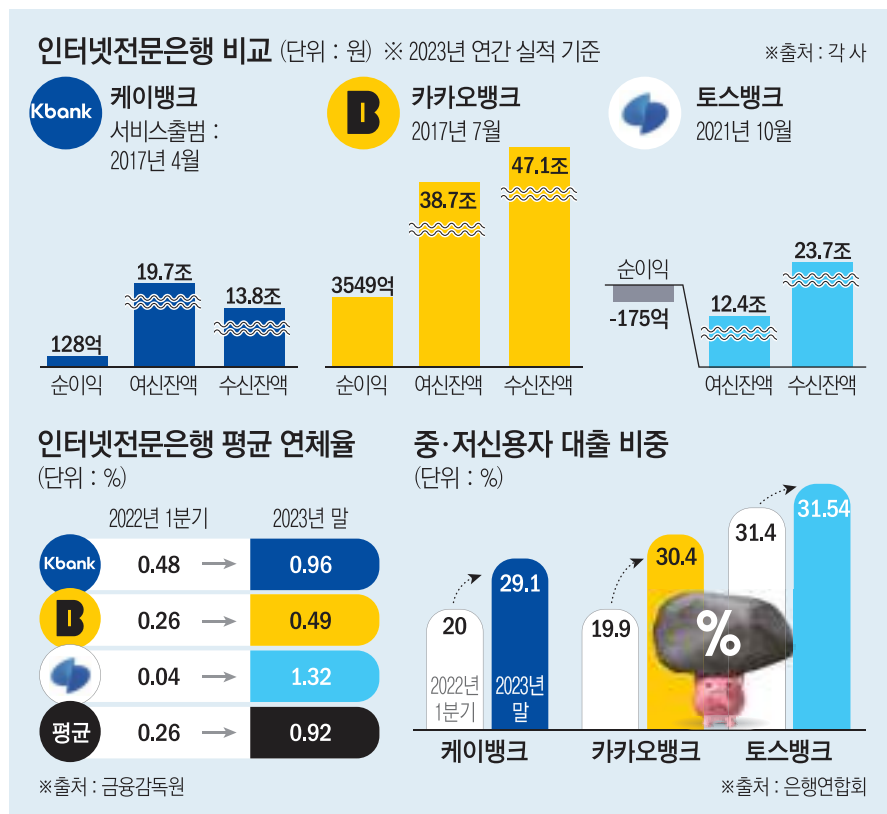
최근에는 환전 수수료까지 무료화했다. 토스뱅크는 1월 환전 수수료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 수수료를 받지 않는 외화통장 서비스를 출시했다. 외화통장은 출시 3주 만에 60만 계좌를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시중은행들은 역마진 우려를 제기했지만, 결국 이 같은 외환서비스 경쟁은 전 은행권으로 퍼져나갔다.

◇비대면으로 시중은행보다 금리 우위=인터넷은행은 영업점 없이 100%비대면으로 운영,비용효율화를 통해 금리 측면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강력한 장점이 있다. 은행 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1월 신규취급 기준 연 3.70%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는 연 3.88~4.43%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케이뱅크 연 3.39%, 토스뱅크 연 3.92%, 카카오뱅크 연 4.00%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은 신한 연 3.94%, 국민 연 3.97%, 하나 연 4.21%, 우리 연 4.23%, 농협 연 4.59%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이 금리 맛집으로 인식되면서 ‘주담대 갈아타기’ 수요를 대거 흡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는 총 2975건, 5722억 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1822건, 총 3212억 원의 이동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저신용자 대출, 자영업 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늘리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현재 연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중·저신용자 흡수에 연체율 ‘쑥’ 파괴력과 함께 몸집 키운 리스크

평균 0.92%… 시중은행의 3배이상 전문가 “해외진출로 수익개선 모색”

인터넷전문은행에는 높은 파괴력만큼 떠안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금융당국의 요구에 발맞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연체율도 같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평균 연체율은 0.92%로 전년(0.69%) 대비 0.23%포인트(p) 올랐다. 이는 토스뱅크 출범으로 3사 체제가 갖춰진 2022년 1분기 연체율 0.26%와 비교하면 3배 넘게 높아진 규모다.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율 0.26%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인터넷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연체율이 가장 높다. 지난해 말 기준 0.96%로 2022년 말(0.85%)보다 0.11%p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 말(0.9%)과 비교해도 0.0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의 연체율은 1.32%로 전년(0.72%)보다 0.6%p 올랐다. 카카오뱅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0.49%를 기록했다.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중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급격하게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금융당국이 매년 제시하는 전체 신용대출 잔액 대비 신용등급 4등급, 신용평점 하위 50%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 비중을 맞춰야 한다.

인터넷은행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고금리 기조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중·저신용자의 상환 여력이 악화하고 있어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이 설립 목적에 맞게 중·저신용자를 위해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담보 대출 상품 확대 등 돈을 떼일 위험이 낮은 대출 상품을 늘려 비중을 건전성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터넷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해외 진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인터넷은행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공공금융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원 기자 jsw@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치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자금

잠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 캠코 선평금융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고3 학생도 천원 아침밥”

박정훈 조재희
8 송파갑

“송파를 교육시범특구로”

배틀필드 410

송파구는 서초와 강남 못지않은 소득 수준과 교육열을 자랑한다. 이를 반영하듯 4·10 총선을 목전에 둔 1일 송파갑 지역구에선 학부모와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이 벌어졌다.

맞대결을 펼치는 박정훈(국민의힘)·조재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자신들이 내건 교육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박정훈 후보는 ‘1일 요리사’가 되어 중·고등학교 등굣길을 찾는 이색 유세 행보를 보였다. 조재희 후보도 지역구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중학교 설립 공약을 설명했다.

이날 아침 7시께, 송파역 1번 출구 뒤쪽으로 쭉 이어진 등하굣길에 빨간 앞치마를 두른 박정훈 후보가 나타났다. 우뚝 솟은 요리사 모자까지 갖춰 입은 그는 빨간색 뒤집개를 들고 학교 정문으로 향했다. 그는 뒤집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요리하는 시늉을 하며 “고교 3학년생까지 ‘천원의



박정훈(오른쪽) 송파갑 국민의힘 후보가 1일 아침 송파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천원의 아침밥’ 공약을 홍보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조재희(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학부모 간담회에서 ‘파크리오 중학교 설립’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열 높은 전통적 보수 텃밭
여야 모두 ‘교육표심 잡기’ 총력

朴, 요리사복 입고 고교 앞 유세
잠실중 2캠퍼스·키움센터 공약

趙, 파크리오단지 내 중학교 설립
낙후학교 현대화·한예중 유치도

아침밥’을 확대하겠다”고 자신의 공약을 소개했다. 그의 옆엔 선거운동원이 ‘고3도 천원으로 아침밥 먹자’라는 내용의 피켓을 목에 걸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도 하나둘 반응을 보였다. 피켓을 본 한 학생은 “천 원”이라고 혼자 작게 속삭였고, 친구와 함께 등

교하던 한 학생은 “천 원이라고요?”라며 박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박 후보가 “그렇다”고 답하자, 학생들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국민의힘을 좋아한다”며 그에게 사진을 요청했다. 박 후보는 천원의 아침밥 외에도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신설 △잠실4·6동 양육시설

확대를 위한 잠실통합키움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조재희 후보도 이날 오전부터 학부모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그는 잠실4동에서 10명 안팎의 학부모들과 만나 자신이 내건 ‘파크리오 단지 내 중학교 설립’ 공약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조 후보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공략하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럽형 중학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기숙사다. (아파트 단지 안에) 6800가구의 기숙사가 완비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주민이 “기존에도 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국회의원이 많았다. 교육청 허가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조 후보는 “(국회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예산을 먼저 제시하면 일이 보다 수월히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는 이외에도 △낙후된 학교 시설 현대화 △송파구 교육시범특구 지정 △오륜동에 한예중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후보는 자신이 30년 이상 송파에 거주한 토박이라는 점을 이날 유권자들에 호소했다. 그는 송파갑에서만 이번이 두 번째 출마다. 앞서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북을 재보궐선거에 나선 것과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한 것을 모두 합하면 이번이 4번째 도전인 셈이다. 글·사진 김은재 기자 silverash@

개헌 얘기 쏙 뺀 ‘세종 국회’... ‘돈 풀어 민생지원’ 효과 의문

4·10 총선 공약, 제 점수는요

포퓰리즘 경쟁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포퓰리즘’ 공약에 눈길을 돌리면서 이슈 물이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을 꺼내 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원 공약 등을 내놨다.

◇국회 세종시 이전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은 서울의

輿, 4년 전엔 세종 이전 결사 반대
대통령실 이전에 대대선 언급 안해

野, 전국민에 25만원 민생지원금
“물가 추가상승, 부작용 우려” 지적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겠다”고 공언했다. 국회를 옮겨 세종을 완전한 정치행정 수도로 만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화답했다.

그러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란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를 말하며, 대한민국 수도는 관습헌법상 서울이다. 따라서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헌법을 개

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도를 세종시로 변경하면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함께 옮겨야 하는데,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현재의 결정을 받아낸 주체가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자유한국당이란 점에서 일관성 없는 주장이란 지적도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의 지난 달 24일 ‘힘지’인 서울 송파구 유세 지원 현장에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해당 공약 예산을 13조 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정부는) 13조 원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30만~50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을 꺼안고 ‘차라리 먼 길 떠나버릴까’ 고민하는 참담한 민생현장을 방

치하는 건 가능해도, 대통령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것 해주겠다, 저것 해주겠다’ (하며) 1000조 원 쓸 돈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현금 지원으로 호재를 맞은 경험이 있다. 총선 직전 당시 문재인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는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 유행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데다 현금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표심 사기’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현금을 지원받아 지역 소비가 늘면 골목상권 등이 살아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내수 활성화로 물가가 추가로 오르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의 소비 진작만을 목표로 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영민 기자 oin@

아이언맨·북극곰 지원군, 무소음 유세... “튀어야 표 받는다”

눈길 사로잡는 이색 유세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와 차별화 포인트를 두기 위한 총선 출마자들의 이색 유세가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송파 남매’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배현진(송파을)·박정훈(송파갑) 후보와 김근식(송파병) 후보는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영화 ‘어벤져스’의 주인공 아이언맨과 함께 지원유세를 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모인 유세장엔 아이언맨뿐 아니라 영화 ‘트랜스포머’의 등장인물 범블비도 등장해 댄스팀과 함께 춤을 추는 등 유세 분위기를 띄웠다. 아이언

맨, 범블비 코스튬을 한 지지자는 유세차량 위로 올라가 손가락으로 ‘숫자2’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도심 한복판에 백곰과 상어, 코끼리가 깜짝 등장한 경우도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은 지난 달 30일 남구 대연동 평화공원에 동물 에어슈트를 입고 나타났다. 주말 공원을 찾는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시도다. 아이들은 상어 에어슈트를 조심스럽게 만져보거나, 코끼리 인형탈의 긴 코를 신기한 듯 잡아봤다.

조용한 선거 유세를 위해, 혹은 좁은 골목골목을 다니기 위해 ‘미니 유세차’를 장만한 경우도 있다. 전재수 부산 북갑 민주당 후보는 좁은 골목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형 트럭을 유세차로 개조했다. 유권자 한 명 한 명을 빈틈없이 찾아가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원희룡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달 28일 ‘무소음 유세’를 위해 빨간색 시트지를 붙인 전용 카트를 타고 다녔다.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카트 높이는 성인 남성 키의 절반 정도, 폭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설 수 있는 정도였다. 원 후보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도움은 못 뱌장정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소리로 악을 쓴다고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잘 들리는 게 아니다”고 무소음 유세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배현진 국민의힘 송파을 후보가 범블비, 아이언맨 코스튬을 한 지지자들과 함께 유세를 호소하고 있다(위 사진). 부산 남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장에서 동물 분장을 한 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배현진·박재호 후보 캠프

부산 수영에 파란 깃발?

무소속 장예찬 ‘보수단일화’ 제안에
與정연속 “무자격자 보수팔이” 거절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선 장예찬 후보가 보수 단일화 경선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는 이를 거절했다. 보수 분열에 따른 3파전 구도에 “15대 국회 때부터 석권해온 텃밭마저 날릴 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 수영 지역구 무소속 장예찬 후보는 1일 “보수의 승리를 위해 조건 없는 단일화 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예찬 후보는 “보수 단일화를 통해 수영구를 지키라는 것이 주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는 보수 단일화 요구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정연욱 후보는 SNS에서 “무자격자의 보수팔이, 감성팔이를 넘어 수영구민을 파는 행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 수영은 부산 18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3파전이 펼쳐지는 곳이다. 전락 공천된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와 민주당 유동철 후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분열로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면서 야당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1일 발표된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유동철 후보 39.4%,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26.7%, 무소속 장예찬 후보는 24.3%로 나타났다. 부동층은 9.7%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뉴스1부산 경남, 쿠키뉴스 동남권본부가 PNR(주)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해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난희 기자 nancho0907@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도서관이 없어 마음껏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시작한 KB작은도서관 프로젝트가
어느덧 116곳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마을에 새로 들어선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마을 어르신들의 정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곳

올해도 KB작은도서관은 9곳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늘 곁에, 더 가까이
KB국민은행

영월 '월담' 작은도서관
KB국민은행

KB작은도서관이란?

KB작은도서관은 평소 책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독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KB 국민은행

“尹담화, 의료개혁 소신 지켜” “선거 국면에 혼선 더 키워”

與 후보들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갈등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도 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어가자,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국민 담화 발표는 국민 전체에 윤 대통령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대통령실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갈등' 해소에 실마리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창구로 나올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의료계도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누그러진 자세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감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메시지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당 지도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갈등이 길어진 상황에 윤 대통령 사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일부 4·10 총선 출마자들은 허탈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사)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경기 지역 한 후보 캠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사과 안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총선을 9일 남겨 놓은 상황에

대통령실 “대화 재개” 기대
국힘 지도부도 대체로 공감

韓 “숫자에 매몰될 문제 아냐”
의대 증원 규모 유연화 요청

“尹, 더 명확한 메시지 줘야”
일부 후보 아쉬움 내비치기도

서 대통령이 상황을 뒤집는 것은 좋을 게 없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사과할 줄 알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지역 후보 캠프 관계자 역시 “어려운 지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마포구에 출마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해 달라.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내 극소수 참모들만 이번 대국민 담화 준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 메시지가 오히려 총선 국면에 혼선만 일으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협지’로 분류되는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 측 관계자는 “TV나 언론에 윤 대통령이 안 보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나마 유권자들 태도가 부드러워진다”면서 “대체 왜 자주 나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투표용지 인쇄, 분주한 손놀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1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인쇄된 투표용지를 직원들이 분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이틀째 지역구 공략... “낙관론 경계” 재차 강조

중·강화·옹진 등 지원 유세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이 9일 남은 1일,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아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같은 지역구 후보로 나온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 위원장과는 소위 ‘명통대전’ TV 토론 사전 녹화를 위해 오전 일정을 비워두기도 했다. 이후에는 인천 동·미추홀을 중·강화·옹진에서 남영희 후보, 조택상 후보 지지 유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와 원 위원장은 2일 저녁 9시에 방송될 ‘인천 계양을 후보자 토론회’를 위해 오후 2시부터 사전 녹화에 들어갔다. 이 대표와 원 위원장은 각각 파란 넥타이와 빨간 넥타이를 매고 녹화에 참석했다. 녹화가

끝난 뒤 이 대표는 곧바로 인천 동·미추홀을 남 후보 유세 지원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동 중 충남 보령서전 후보 지원 라이브방송을 겸 이 대표는 거듭 “낙관론을 경계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일각에서 민주당이 우세라는 낙관이 퍼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하면서 읍소 작전을 하고 위기를 조장하고 결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쪽의 방심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0.2%, 0.02%로 수백 표, 천몇백 표로 결판나는 지역이 전국에 50개쯤 된다”며 “저희가 분석하기로 49개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이 조금만 떨어지고, 저쪽이 조금만 오르면 다 뒤집어진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가

위기”라며 “절대 안심하면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남영희 후보 현장 유세 지원을 마친 뒤 중구 영종하늘도시 별빛광장에서 조택상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이후엔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 골목 돌며 유권자와의 만남에 집중했다.

이 대표가 지역에 집중하는 사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서울 동북권 지역을 돌며 유세 지원에 열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을(김남근 후보)·성북갑(김영배 후보)·은평갑(박주민 후보)·서대문을(김영호 후보)·종로구(곽상언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정영민 기자 oin@

Dexcom G6

고혈당을 실시간으로, 저혈당을 사전에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 덱스콤 G6

- ✓ 고혈당, 저혈당 알림과 경고!
- ✓ 손가락채혈(BG)을 통한 보정이 필수적이지 않음
- ✓ 혈당값을 5분마다, 하루 288번 스마트장치로 전송
- ✓ 최대 5명까지 연속 당수치 공유 가능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실구매가 100% 지원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24개월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피부 표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세포 간질액에서 측정된 포도당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포도당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로 자가검사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내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농도측정 결과 수집을 위해 사용한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010-18-0031 (유효기간 24.11.12)

h 휴온스



N 덱스콤 G6



〈바이오의약품〉

‘한국판 바이오메이드’ 구축… “2030년 100억弗 수출”

정부 ‘바이오 제조 혁신전략’

초격차 확보 위해 2.1조원 투입
17.7조원 규모 민간 투자 유치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금융 공급

정부가 바이오 분야 첨단 생산 공정 고도화를 위해 미국의 바이오메이드(BioMADE·바이오제조혁신플랫폼)을 벤치마킹한 ‘한국판 BioMADE’ 구축에 나선다. 또 2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바이오소

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17조7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생산 규모는 15조 원까지 키운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 제조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 제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역량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구개발(R&D) 지원,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조성, 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2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7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고, 2030년이 되면 우리 기업들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수출 규모가 각각 15조원, 1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산 지원과 별개로 정부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올해만 4조2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 분야 첨단 생산 공정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BioMADE’(바이오메이드·바이오제조 혁신플랫폼)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한다.

미국은 2020년 산·학·연과 정부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이룬 연구 기관인 바이오메이드를 설립해 미국 바이오산업 제조 능력 강화를 도모 중이다. 또 내년부터 구축할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와 연계해 기업들의 생산 공정을 고도화하고 상용화를 가속하기 위해 미국 등의 선도 국제기관

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 7월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해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2030년까지 전체 ‘바이오 경제’ 생산 규모를 100조원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 는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할 미래 먹거리이자 보건의보의 필수 산업”이라며 “바이오 제조 혁신 플랫폼 구축 및 소부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바이오 제조 허브로의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온라인쇼핑 ‘설날 대박’ … 2월 거래액 11% 쏙

작년보다 1.9조 늘어난 19조원
명절에 음식료품·농축수산물 ↑
여행·레저·e쿠폰서비스도 증가

올해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 대비 두 달 연속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관련 상품인 음식료품 및 농축수산물 거래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1.0%(1조8856억 원) 늘어난 18조9766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12.2%) 이어 2월에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만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조 원 이상을 기록해온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거래액이 20조 원 아래로 내려갔지만 올해 1~2월 두 달째 1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과 농축수산

2월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단위: 억원)

	2023년	2024년
전체	17조910	18조9766
음·식료품	2조1336	2조5787
여행 및 교통서비스	1조7568	2조1369
음식서비스	2조258	2조678
생활용품	1조2714	1조4166
농축수산물	7311	1조882
e쿠폰서비스	7184	9738
화장품	8787	9662
컴퓨터 및 주변기기	8893	8460
통신기기	6527	5109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2365	2818
문화 및 레저서비스	1918	2386

※ 출처: 통계청

물 거래액이 1년 전보다 각각 20.9%, 48.9% 증가했다. 온라인 거래의 편의성과 2월 설 명절(2월 9일~12일) 할인 행사 등으로 두 상품군의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도 코로나 19 엔데믹과 설 연휴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1.6% 늘었다. 여행·교통 서비스와 함께 외부활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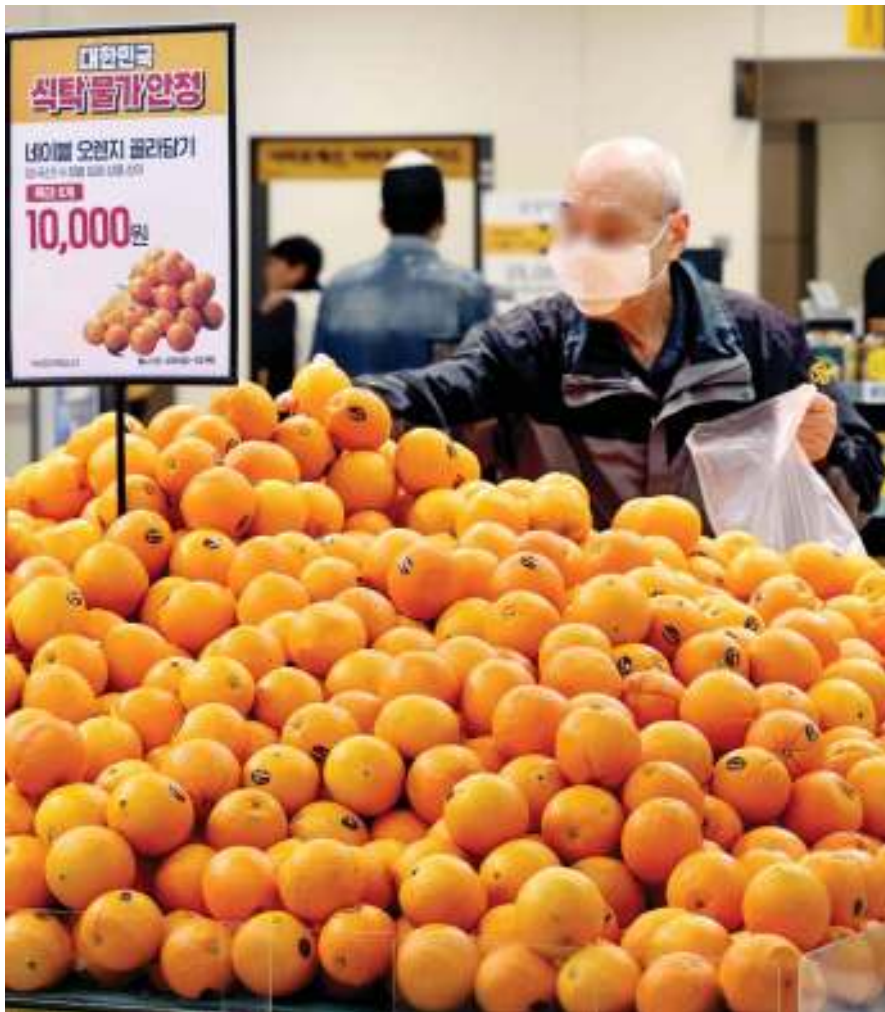
관련이 있는 문화 및 레저서비스와 화장품도 각각 24.4%, 10.0% 늘었다.

온라인쇼핑의 꾸준한 수요 증가 영향으로 e쿠폰서비스(35.5%),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9.2%) 등의 거래도 크게 늘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도 1년 전보다 2.1% 늘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통신기기(-21.7%), 컴퓨터 및 주변기기(-4.9%), 가방(-4.2%) 등은 감소했다.

상품군별 구성비는 음식료품(13.6%), 여행 및 교통서비스(11.3%), 음식서비스(10.9%)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14조20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6%포인트(p) 오른 74.8%로 집계됐다.

모바일 거래액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음식서비스(98.4%), 아동·유아용품(84.1%), 화장품(82.6%) 순이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사과 수출 줄고 오렌지 수입 늘었다

국산 과일값 강세에 사과와 배 수출은 급감하고 바나나와 파인애플, 오렌지 수입이 대폭 늘었다. 1월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사과 수출량은 58톤으로 지난해 대비 75% 이상 줄었고 같은 기간 배도 약 62% 수출이 감소했다. 이상 기후로 전년보다 각각 30%, 26%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 기간 과일 수입은 대폭 늘어나, 바나나는 6만2502톤을 들여오는 등 42% 증가했고, 파인애플은 31%, 오렌지는 129% 급증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오렌지를 고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달부터 물가하향 기대… 온라인 도매 활성화 추진”

최상목<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다음 달부터 물가가 조금씩 하향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구 군위군 과수단지 방문 전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의 오찬에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국민 체감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농축수산물 관련해서 가격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난달 물가 상승률(3.1%)보다 오르지 않게 노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근원 물가는 기본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에너지, 식료품,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해 전체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동 요인을 줄이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과수 단지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과실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수 경쟁력 강화, 냉해 예방 부분, 스마트 재배하는 부분을 가서 보

최상목 “3대 변동 요인 줄이면 하반기 상승률 2% 초중반 예상
수요·공급기반 늘려 구매 확대”



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게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과실 가격 상승을 해소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통구조 안에서 비효율 요인을 제거해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령 유통구조가 A, B, C 등 여러 개가 있으면 유통구조 간 경쟁을 통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요즘에는 과일이나 농산

물을 마켓컬리에서 많이 시켜 먹는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도매 시장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건은 참여자를 늘리는 것인데 개별 슈퍼마켓으로는 온라인 도매가 어려운 만큼 슈퍼마켓연합회처럼 집단화해 시장에 참여하거나 산지에 있는 사람도 여러 연합회를 만드는 등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자, 사는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요와 공급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할인지원이 오히려 사과 등 과일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론상으로 맞지만 사과의 경우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다. 사과처럼 국민적 관심이 크고 애용하는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할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일부 가공식품의 한시적 부가세율 인하(10%→5%) 요청과 관련해서는 “요청을 했으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장기 국고채금리, 美 영향↑… 변동성 커질 듯”

한은 ‘美 국채금리 국내 파급영향’

우리나라의 장기 국고채금리가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와 동조성이 확대된 가운데 통화정책전환(피벗·pivot)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은 1일 “한·미 통화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미국 국채금리의 영향으로 국내 장기국고채금리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간한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기 중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파급영향 확대 배경 및 평가’ 보고서에서 “미 국채금리의 파급영향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예상한 것이다.

연구팀은 글로벌 통화긴축이 본격화된 2022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미국 장기 국채금리 변동에 연동돼 움직이는 모습이 한층 강화됐다고 짚었다. 미 국채금리의 국내 파급영향 확대

배경으로는 △미국과의 금융연계성 강화 △거시충격에 따른 실물경제 및 정책금리 동조화 △투자자의 미국 국채금리 추종경향 강화 △국제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방향성 거래 확대 등 5가지를 꼽았다.

연구팀은 “(미국과의 금융연계성 강화는) 2019년 이후 한·미 간 금융연계성이 포트폴리오투자를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금융 경로를 통한 미국 국채금리의 파급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실물경제 및 정책금리 동조화 현상에 대해서는 “2022년 중 글로벌 고물가 등의 거시경제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주요국의 물가여건이 유사(실물경제 경로)해지고 이에 대응한 통화정책이 일방적으로 운용되면서 주요국 정책금리의 동조성(통화정책 경로)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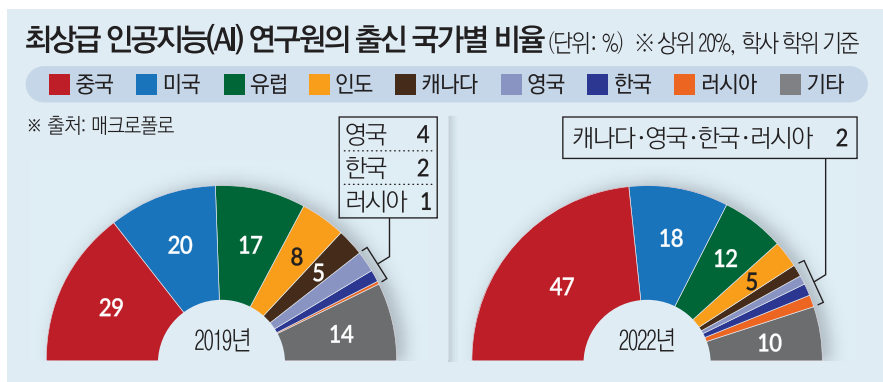
국내 투자자의 미 금리 추종 경향이 강화된 것은 동조성 기대 지속, 미 금리충격 확대, 국내요인 안정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中 ‘생성 AI’ 美 맹추격… 日 ‘오픈AI 아시아 거점’ 유치

中, 메타의 오픈소스 사용해
기술 격차 좁히고 인재도 확보
바이두 ‘어니봇’ 이용자 1억명
AI 연구원 배출 비중 中 47%
오픈AI 이달 도쿄서 독자서비스

중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에서 미국을 맹추격하는 가운데 일본도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첫 아시아 거점을 유치하며 AI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CNBC 등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글로벌 AI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AI 기업은 425억 달러(약 5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중 미국 기업은 310억 달러를 확보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오픈AI와 앤스로픽, 인플렉션AI 등 AI 스타트업의 약진이 두드러진 결과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같은 기간 AI 부문에 2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유입된 자금은 전년(55억 달러)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

하지만 중국은 향후 몇 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의 ‘글로벌

별 AI 인재 추적기 2.0’에 따르면 학사 학위 기준으로 최상위 AI 연구원을 배출하는 국가의 비중은 중국이 47%를 기록하며 미국(18%)을 3배가량 앞섰다. 또 미국에서 근무하는 최상위 AI 연구원 중 중국과 미국 출신은 각각 38%, 37%로 나타났다.

중국은 메타의 오픈소스 대규모언어모델(LLM) 라마1을 활용한 AI 개발에 나서며 기술 격차도 좁히고 있다. 컨설팅업

체 텐트스클로벌어드바이저의 폴 트리올로 중국 담당 수석 부사장은 “중국이 (미국보다) 뒤처져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미국 모델을 개선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장 진입 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중국 바이두의 생성형 AI 챗봇 ‘어니봇’은 지난해 말까지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S24 모델에 어니봇을 탑재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중국 판매 기기에 바이두의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SMIC와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들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화웨이는 지난해 8월 출시한 스마트폰 ‘메

이트(Mate)60’에 7나노미터(nm·10억분의 1m) 칩을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픈AI는 이달 일본 도쿄도 내에 첫 아시아 거점을 설립하고 법인 기업에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현지 인력 채용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오픈AI는 해외시장 전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국 런던과 아일랜드 더블린에 사무소를 열었다. 가짜뉴스 확산 등 생성형 AI 보급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고 AI 관련 규제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이번 도쿄 사무소 개설을 통해 아시아권 AI 사용과 리스크 억제에 위한 규제 틀 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지(닛케이)는 내다봤다. 일본 기업들도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하는 오픈AI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게 됐다. 전이현 기자 cahyun@



성난 이스라엘 국민 “네타냐후 물러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크네세트(의회) 건물 인근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위대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와 인질 협상 합의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최소 4일간 크네세트 밖에서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 추산으로 이날 10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최대 규모 시위다. 예루살렘/EPA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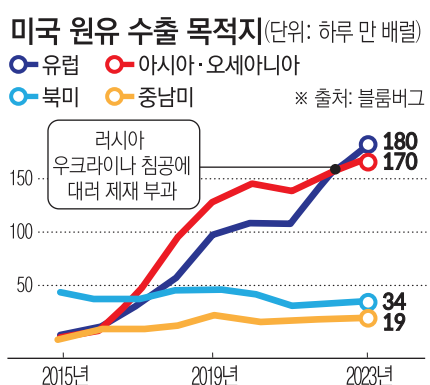
러 원유 제재·OPEC 감산에… 美는 어깨춤

3위 수입국 인도도 미국산 찾아
美 월간 수출량, 5차례 신기록

미국이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 등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올랐다. 전 세계로 향하던 미국산 수출량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수출량은 2022년 서방이 대러 제재를 시작한 이후 월간 기준으로 5차례나 신기록을 세웠다. 그간 러시아산을 구매해 오던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 끊긴 러시아발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구매를 늘린 데 따른 결과다. 4월부터는 또 다른 주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미국 원유 수출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미국산 원유는 과거에도 전 세계가 선호하는 상품으로 통했지만, 러시아가 우



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에너지 흐름이 끊기면서 구매자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로의 배송은 급증했고 세계 최대 수출국 타이틀도 갖게 됐다.

최근에는 대러 제재 이후에도 불법 경로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던 인도마저 미국산을 찾기 시작했다. 석유 데이터 회사 케이플러에 따르면 3월 미국의 대인도 원유 선적량은 약 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원유 수입국이자 러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고객이었던 곳이다. 게

다가 최근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최대 해운사 소브코프포트 소유의 유조선 화물을 인도 정유업체가 더는 받지 않기로 하고 베네수엘라산 구매도 중단함에 따라 향후 인도의 미국 의존은 더 커질 수 있다.

OPEC+의 자발적 감산도 미국의 수출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달 초 OPEC+는 2분기 말까지 자발적 원유 감산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은 하루 22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책임지고 러시아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긴 상황임에도 미국의 기록적인 생산량을 상쇄하고자 감산을 유지하고 있다.

블랙골드인베스터스의 개리 로스매니저는 “미국 생산량은 늘고 OPEC과 러시아 생산량은 줄어서 미국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

경제 불안에 유권자 등 돌려
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레제프타이이프 에르도안(사진)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제 불안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인해 참패했다.

튀르키예 야나들루 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수인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의 득표율은 개표율 90% 기준 35.78%로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지지율 37.32%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CHP는 튀르키예 수도와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이스탄불을 수성하는데 성공한 것은 물론, 81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승리하며 집권당의 거점 지역에 다수 진출했다.

특히 이스탄불과 앙카라, 이즈미르, 부르사, 안탈리아 등 5대 도시에서 승리했다. 20년 이상 정권을 운영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당에 최악의 패배가 돼 정세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5년 전 야당에 내준 이스탄불, 앙카라 등 주요

도시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무슬림 유권자들의 불만이 여당의 패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최대 승부처인 이스탄불에서 또다시 패배하면서 심한 정치적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다.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 재선에 성공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신임 투표 성격을 띠고 있어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로 여겨져 왔다.

반면 재선에 성공한 CHP 소속의 에크렘 이마모글루 현 이스탄불 시장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라이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는 득표율 50% 이상을 얻으면서 AKP 후보를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압도했다. 그는 2019년 정치 신인에 가까웠음에도 AKP 이인자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유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에르도안의 정치적 근거지이자 안방에서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확인하면서 2028년 튀르키예 대선에 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변효선 기자 hsbun@

“AI 투자, 과학은 없고 코인처럼 과대광고”

알파고 개발한 허서비스 우려

바둑에서 이세돌 기사를 꺾어 인공지능(AI)의 우수함을 알린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서비스 구글 답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으로 AI에 막대한 투자가 쏟아지는데 대해 놀라운 과학적 진보는 가려지고, 가상자산(암호화폐)처럼 과대광고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허서비스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가 AI 스타트업과 제품에 쏟아지면서 가상자산 등 분야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과장 광고와 사기성 사건이 이뤄지고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가상자산에 쏟아부었던 자금이 이제 AI로 흘러 들어갔는데 다소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는 과학과 연구를 흐리게만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가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광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우려했다.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인 챗GPT를 선보인 후 AI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시장분석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탈들은 2500건의 AI 스타트업 투자 라운드에 총 425억 달러(약 57조 3300억 원)를 투자했다.

미국 정부도 AI 붐을 타고 허위 주장을 하는 기업들이 성행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다. 이진영 기자 mint@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황중곤

임성재

이준석

정찬민

이수민

박상현

조우영

서요섭



2024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페럼클럽
04. 25 (목) - 04. 28 (일)



우리금융챔피언십
티켓 이벤트 바로가기

SBS Golf 2

생중계 채널번호 안내

GENIE TV
62

Btv
972

U+ tv
99

skylife
219

주최 | 우리금융그룹

주관 | 한국프로골프투어
KOREA PROFESSIONAL GOLF TOUR

방송 | **SBS Golf 2**

유한양행 연봉 9600만원 최고… 중외제약 6200만원 최저

작년 10대 제약사 직원 연봉

유한양행 남녀 임금 모두 1위
근속연수도 12년8개월 최장

女 6000만원 못받는 기업 절반
제일약품 4900만원에 그쳐

국내 상위 제약사 대다수가 지난해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 성장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직장으로 주목받지만, 평균 연봉과 근속연수는 10대 제약사라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매출 상위 10대 상장 제약사의 2023년 말 기준 평균 연봉 1위와 평균 근속연수 1위 모두 유한양행이 차지했다. 10대 제약사는 연매출 기준 유한양행, 중

10대 제약사 연봉 및 근속연수 (단위: 만원, 2023년 말 기준)

매출 순위	기업	평균연봉	남성평균	여성평균	성별격차	평균근속연수
1	유한양행	9600	1억400	7300	3100	12년8개월
2	종근당	7800	8300	6600	1700	9년
3	GC녹십자	7000	7200	6300	900	9.7년
4	한미약품	8000	8600	6600	2000	8년3개월
5	대웅제약	7300	8100	5900	2200	6.2년
6	보령	7500	8200	5800	2400	6년7개월
7	HK이노엔	7300	7600	6500	1100	8.3년
8	JW중외제약	6200	6500	5300	1200	8.4년
9	동국제약	6600	7400	5100	2300	6.4년
10	제일약품	6300	6900	4900	2000	7.0년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K이노엔: 성별 통계는 전문의약품 사업부만 기준

근당, GC녹십자, 한미약품, 대웅제약, 보령, HK이노엔, JW중외제약, 동국제약, 제일약품 순이다.

유한양행은 평균 연봉 9600만 원으로 10대 제약사 가운데 나홀로 9000만 원대였다. 전년(9100만 원)보다 500만 원 늘었다. 성별로남성 평균 연봉은 1억400만

원, 여성 평균 연봉은 7300만 원이었다. 성별 임금 격차는 3100만 원으로, 조사 대상 제약사 중 가장 컸다. 3000만 원이 넘는 격차에도, 여성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제약사 역시 유한양행이었다.

지난해 종근당에 매출 2위 자리를 내준 GC녹십자의 평균 연봉은 1조 클럽 제약

사 중 가장 낮은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근속연수는 9.7년으로 10년에 육박해 유한양행 다음으로 길었다. 유한양행에 이어 많은 임금을 주는 제약사는 매출 4위한미약품(8000만 원)이었고, 종근당(7800만 원), 보령(7500만 원) 순서로 평균 연봉이 높았다. 대웅제약과 HK이노엔은 나란히 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0대 제약사 가운데 평균 연봉이 6000만 원대인 회사는 동국제약(6600만 원), 제일약품(6300만 원), JW중외제약(6200만 원)이었다. JW중외제약은 홀로 평균 연봉이 소폭 감소했는데, 회사관계자는 “사회초년생과 MZ세대의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대 제약사의 남성 평균 연봉이 6000만 원을 넘지 못한 회사는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대웅제약과 보령, JW중외제약, 제일약품, 동국제약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평균 연봉이 8000만 원을 넘

는 곳이 절반이었다. 여성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제일약품으로 4900만 원에 그쳤다. 이 회사의 남성 평균 연봉은 6900만 원으로, 임금 격차는 2000만 원을 기록했다. 한미약품도 남성 8600만 원, 여성 6600만 원으로 2000만 원 차이가 났다.

지난해 연매출 8500억 원을 넘긴 보령의 남성 평균 연봉은 8200만 원으로 일부 1조클럽 제약사보다 높았지만, 여성 평균 연봉은 5800만 원에 불과했다. 임금 격차는 2400만 원으로 유한양행 다음으로 컸다. 대웅제약은 전년에 이어 1조 클럽 제약사 중 홀로 여성 평균 연봉 5000만 원대(5900만 원)를 기록했다. 남성 평균 연봉은 8100만 원으로, 임금 격차가 2200만 원이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회사는 GC녹십자였다. 남성 평균 연봉 7200만 원, 여성 평균 연봉 6300만 원으로 10대 제약사 중 유일하게 1000만 원 미만의 격차를 보였다.

유혜은 기자 euna@

기보 창립 35주년… 김종호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강화할 것”

“정책금융기관 역할 점점 중요해져”
코로나19 때도 ‘경제 안전판’ 활약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고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보는 1989년 4월 1일 설립돼 고객인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한 축으로 성장했으며,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종호 이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기보가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이라며 “지난 35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에 높은 새로운 과제들을 묵묵히 실천해 한 단계 도약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혁신성장 지원 역할 강화 △고객서비스와 업무 전반에서의 혁신 추진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조직문화 창출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핵심 정책기관으로 발돋움하자”고 말했다.

기보는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본점 별관 1층에 홍보기념관을 새롭게 오픈했

다. 기보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에는 벚꽃 플로깅(Plogging) 행사를 통해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의 쓰레기 수거와 분류 작업을 진행해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설립 이후 35년간 기술중소기업을 육성·지원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 감독권이 이관된 이후에는 ‘기

술금융 중심 지원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변모해왔다.

기보는 국내 최고의 기술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IP 사업화 지원 △기술이전 및 보호 △탄소가치평가 등으로 저변을 넓히며 혁신기업 지원의 퍼스트무버로서 기술금융을 선도해왔다.

향후 기술평가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수출중소기업 지원과 R&D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기술보증기금

삼성 “헬스케어 아이디어 발굴”… AI 해커톤 연다

미국서 의료서비스 개선 모색
현지 디지털헬스팀 인력 확대

삼성전자가 올해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헬스케어 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차세대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1일 삼성전자가 따르면 투자자회사 삼성넥스트는 다음 달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2024년 생성형 AI 해커톤 대회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대회에서 헬스&웰니스(Health&Wellness)와 미디어테크(MediaTech) 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팀을 발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헬스&웰니스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결과 개선과 웰빙을 증진시키고, 개인에게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미디어테크 분야에서는 콘텐츠 제작과 배포, 시청자 참여 등을 강화할 수 있는 AI 기술 아이디어를 강



삼성전자의 차세대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링’.

뉴시스

구한다.

우수한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삼성넥스트를 포함해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인텔 캐피탈, 콰카 캐피탈, 플라이브릿지 등 글로벌 벤처 기업의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최근 삼성전자는 헬스케어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점찍고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삼성전자 연구개발(R&D) 조직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는 올해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팀 확장 기조를 세우고, 전문 인력을 늘리고 있다. 디지털 헬스팀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및 솔루션을 설계하

고 개발한다.

이 부서는 지난달 생성형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제품의 포트폴리오 제작부터 출시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또 임상 연구 설계 담당하는 엔지니어도 모집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차세대 헬스케어 제품 갤럭시링을 출시할 예정이다. 갤럭시링은 반지 모양의 웨어러블 기기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 등 신사업 육성도 강화하는 두 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박민용 기자 pmw7001@

中 쇼핑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8명 불만

대한상의 소비자 800명 설문조사
배송지연·저품질·불량품 순 사유
93%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 답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있는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이용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년 이내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1%는 이용 이유로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43.5%), ‘특별한 쇼핑 재미가 있어서’(33.8%) 등의 응답도 나왔다. 하지만 응답자의 10명 중 8명(80.9%)은 이용에 불만이 있으며 피해를 경험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인 불만이나 피해 사항으로 10명 중 6명(59.5%)은 배송 지연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낮은 품질’(49.6%), ‘제품 불량’(36.6%), ‘과대광고’(33.5%), ‘AS 지연’(2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만이나 피해의 대처 방법으로는 ‘해당 온라인쇼핑 플랫폼에 해결 요청을 한다’(56.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0명 중 4명(39.9%)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국내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피해를 상담한다’는 비중은 7.9%에 불과했다.

불만이나 피해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구매했기 때문’에(56.6%), ‘대응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울 거 같아서’(54.3%) 등을 차례로 꼽았다.

피해 예방이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국가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공조 협력시스템 구축 강화’(56.9%)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피해 사례정보 제공’(49.5%)이 뒤를 이었다.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 구매빈도는 월 1회(58.9%)나 2회(19.5%)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1회 이용 시 평균 4만 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구매 품목으로는 생활용품(53.8%), 의류(40.1%), 스포츠·레저(33.1%), 가방·지갑 및 잡화(32.8%), 컴퓨터 및 주변기기(27.4%), 가전·전자·통신기기(25.9%), 신발류(14.4%) 등으로 나타났다. 강문정 기자 kangmj@

SK하이닉스, 업계 첫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 확보

재활용 소재 사용 로드맵 실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계 최초로 네온(Ne) 가스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다. 국내 반도체용 특수가스 기업 TEMC와 협업해 이뤄낸 성과다.

1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입에 의존해 온 네온의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회사는 국내 소부장 기업과 함께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서 1년 여 만에 성과를 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재활용 소재 사용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재활용 소재 비율 25%,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네온 재활용 기술 개발은 이 로드맵을 실현해 가는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네온은 희귀 가스 중 하나로, 반도체 노

국제정세 불안에 수급 불안정

특수가스 기업 TEMC 손잡고

기술개발 1년여 만에 성과

팹 적용시 年400억 절감하고

온실가스 1.2만톤 감축 효과

공공정에 필수적인 엑시머 레이저 가스(Excimer Laser Gas)의 주요 성분이다. 네온은 레이저 광원으로 활용할 때 화학적으로 분해되거나 변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한 번 사용한 네온은 불순물 제거 등의 분리 및 정제만 거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회사는 이 점에 주목해 네온 재활용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SK하이닉스와 TEMC는 노광공정 이후에 스크리버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던 네온 가스를 수집 탱크에 포집하고, TEMC의 가스처



리 과정을 통해 네온만 선택적으로 분리해 정제했다.

이렇게 정제된 네온은 다시 SK하이닉스로 공급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된다. 현재 네온 회수율은 72.7%에 이른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제수율을 개선해 네온 회수율을 77%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번 기술 개발은 SK하이닉스와 소재

및 장비 협력사가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만들어진 성과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협력사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네온 재활용 기술이 반도체 팹에 적용될 경우 연간 400억 원 상당의 네온 구매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기술은 네온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1만2000톤 가량 줄이는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네온 재활용 기술 개발을 주도한 SK하이닉스 탄소관리위원회의 소재 재활용분과는 반도체 공정에서 화학적으로 분해 및 변형되지 않는 모든 소재의 재활용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분과는 2025년까지 네온, 중수소(D2), 수소(H2), 헬륨(He) 등 4개 가스 소재와 황산(H2SO4) 등 화학 소재를 비롯해 총 10개 원자재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화학적 변형이 없는 모든 소재에 대한 기술 검토를 완료한다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해의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반도체 제조 전반의 밸류체인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회사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가전 호조’ LG전자, 1분기 깜짝실적 예고

LG전자, 매출 4.1% 증가한 21兆 B2B 빌트인 가전·HVAC 성장세

전구독 등의 효과도 매출 성장세를 뒷받침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1조4974억원)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가전(H&A) 사업본부와 HE 사업본부에서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전년 가전사업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역대 최대 성과를 올렸던 점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최준원 신영증권 연구원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B2B 빌트인 가전, HVAC에서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올해 B2B 매출이 전체 H&A 사업부 매출의 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조대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H&A 사업부는 불륨존과 가전 구독을 확대하는 동시에 HVAC 중심의 B2B 확대로 성장을 전망한다”고 했다.

특히 LG전자의 전장(VS·자동화솔루션) 사업이 견조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

삼성, 영업이익 5兆 1년새 700% 쏘 반도체 회복·갤S24 출하량 증가

다. LG전자의 VS 수주잔고는 지난해 말 95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일찍부터 실적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됐다.

메모리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5조 29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6402억

원)보다 685.7% 증가, 직전 작년 4분기(2조8247억원)보다는 78% 늘어날 전망이다. 또 삼성전자의 AI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도 글로벌 판매 증가로 실적 반등에 한몫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TV 등 고부가가치 가전도 견조한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아킬레스건으로 지적 받아왔던 HBM에서도 실마리를 찾았고, 비메모리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스마트폰 출하량은 5700만대로 전 분기 대비 8%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5월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삼성전자 부회장〉

한중희 “AI기술 무장한 비스포크로 고객 일상 바꿀 것”

3일 ‘웰컴 투 비스포크 AI’ 행사 삶 바꿀 100가지 연동기능 선포

“최첨단 인공지능(AI)과 스마트싱스 기반 연결 기술로 무장한 ‘비스포크 AI’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중희(사진) 삼성전자 DX부문장 겸 대표이사 부회장은 3일 열리는 비스포크 AI 제품 글로벌 출시 행사인 ‘웰컴 투 비스포크 AI’를 앞두고 1일 삼성전자 뉴스룸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부회장은 “50년 전인 1974년 삼성전자가 만든 최초의 냉장고·세탁기·에어컨 제품이 세상에 선을 보였다”며 “이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삼성전자는 이들 제품 분야에서 집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전인 2019년에는 비스포크(BESPOKE) 제품을 처음 선보이며, 개개인에게 최적화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일상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는 ‘AI가전=삼성’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비스포크

AI의 핵심은 보안”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도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의 AI 제품은 사용자가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삼성 녹스(Knox)’가 보호를 하고 있다”며 “상호 연결된 삼성 기기는 블록체인 기반의 ‘녹스 매트릭스(Knox Matrix)’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해 제품 간 보안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신 AI 제품인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와 ‘비스포크 제트봇 콤보 AI’는 글로벌 인증기업

UL 솔루션즈의 사물인터넷(IoT) 보안평가 최고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했다”며 “글로벌 가전업계에서 UL 솔루션즈의 ‘다이아몬드’ 등급을 얻은 다른 제품은 없다”고 자신했다.

한 부회장은 올해 선보일 제품은 ‘AI 기술의 집약체’라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선보이는 제품들은 센서와 인식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술, 고성능 AI 칩과 타이젠 운영체제(OS)까지 이 모두를 집대성해 집안일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패밀리허브 냉장고의 대화면이나 비스포크 AI 콤보의 7형 터치스크린으로 집안 곳곳의 제품을 조작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제품의 주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회장은 “올해 비스포크 AI 제품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자연스런 대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계획”이라며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제품 간 연동 기능을 100가지 이상 다채롭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LS일렉, SIEF·KSGE서 차세대 전력 솔루션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 참가 UL 배전솔루션 등 풀패키지 공개

LS일렉트릭이 국내 최대 전력, 스마트 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해 차세대 스마트 전력 시장을 선도할 전력 제품을 공개한다.

LS일렉트릭은 3~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전기산업대전(SIEF)·한국스마트그리드엑스포(KSGE) 2024’〈전시장 부스 조감도〉에 동시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LS일렉트릭은 행사장에서 △LS일렉트릭 50주년 △핵심 솔루션 △파트너십 등 3개 존을 구성하고, 차세대 스마트 전력 솔루션과 글로벌 사업 전략을 대거 공개한다.

LS일렉트릭은 직류(DC)·교류(AC) 제품 기반 차세대 스마트 배전 솔루션을 전면 배치하고, 미국, 동남아 등 중심의 글로벌 전력 시장 확대 전략을 소개한다.

국내 중전 기업 유일 UL 인증 배전반과 함께 △스마트 스위치기어 △직류배선용 차단기 △직류릴레이 △직류개폐기 등 차세대 전력 시스템 풀패키지를 공개한다. 또 송·변전부터 배전에 이르는 전력계통 전체에 적용되는 전력 솔루션 기술력과

공급 역량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관리 플랫폼 ‘그리드솔 큐브’ △전력설비 통합관리 플랫폼 ‘그리드솔 케어’ △자산관리시스템(AM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 수요자 맞춤형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기술 기반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도 전시한다.

글로벌 산업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장 공략을 위한 차세대 플랫폼 MSSP와 스마트 공장 솔루션 플랫폼 ‘솔루션 스퀘어’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LG PRI, 동우전기 등 파트너 기업을 위한 전시 공간도 함께 마련한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지난 50년 산업화와 미래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전력·자동차 분야 초격차 기술 역량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며 “최고 수준의 제품에 AI·디지털 기술 더해 글로벌 스마트 전력 에너지 시장 확대에 가속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책임 비해 처벌 과해”… 중소기업계,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중소기업인 305명 청구인 참여

중기·경제단체 등 현재 앞으로

“규정 명확성 없어 불안 시달려
1년 이상 징역, 위헌 결정돼야”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처법상 불명확한 의무와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업계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1년 이상 징역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현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월 헌법소원 추진을 예고한 지 약 40일 만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여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법을 지켜왔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라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장 문제로 보는 부분은 중차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이다. 중대재해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데도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정 부회장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중차법 4조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 역시 표현이 불명확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들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달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이번 헌법소원이 중처법 적용에 대한 회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을 강조한다고 중대 재해를 줄일 수는 없다”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않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민원실로 이동했고,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직접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PTR : 주가기술비율(Price Technology Ratio)로 성장사가 보유한 특허가치를 주가와 비교하는 지표임.
PER이나 PBR처럼 기술가치 대비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투지지는 웹 계약에 대하여 SK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램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협 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잘히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평

7821-052489

권 준영 감사인 심리평 제23

2022.7.19 - 2026.7.18

SLICE

배달 플랫폼 3사 배달비 '무료' 배틀

배달의민족	요기요	coupang eats
알뜰배달 배달팁 무료 제공. 한집·알뜰배달 10% 할인 및 배달비 무료 혜택 이용자 선택으로 수시 변경	무료 배달 구독료 9900→4900→2900원 인하. 1만7000원 이상 주문 시 무제한 배달비 무료	유료 멤버십 회원 대상 묶음 배달 무료 서비스. 기존 10% 할인 혜택은 5월 말 이후 폐지

쿠팡이츠 ‘배달비 무료’ 공세에 배민 ‘골라 먹는 할인’으로 반격

배달업체 '메기' 쿠팡이츠가 불러온 무료배달 바람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무료배달로, 요기요는 구독료 인하로 맞불을 놓으면서 업계 경쟁 격화가 이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일부터 알뜰배달을 무료 제공했다고 밝혔다. 알뜰배달(묶음배달)은 여러 집에 동시에 배달하는 서비스로 작년 4월 도입했다. 쿠팡이츠가 일주일여 앞서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묶음배달 서비스를 무료화하자 나온 조치다.

알뜰배달 무료 제공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우선 시작했다. 이용자는 배민 애플리케이션(앱) 내 배너를 통해 알뜰배달 배달팁 무료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은 무제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배민 관계자는 “주문 금액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한집·알뜰배달 10% 할인과 배달비 무료 혜택을 중한 가지를 고정 선택하지 않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며 “대체로 주문 단가가 높은 경우 10% 할인의 혜택이 크고, 주문 단가가 낮을 때는 배달비 무료의 효과가 좋다. 또 한집배달 주문 시에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주문 상황에 따라 할인 금액이 더 큰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민이 10% 할인과 알뜰배달 무료 등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앞서 무제한 무료배달카드를 꺼낸 쿠팡이츠의 빈틈을 저격한 것으로도 보인다.

쿠팡이츠는 지난달 26일부터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와우 회원은 무료배달과 프리미엄 서비스인 한집배달 중 원하는 배달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다만 배달비 무료는 여러 집을 동시에 배달하는 묶음배달 서비스에 적용되며 무료배달 대신 기존 와우 회원에게 적용되던 음식값 10% 할인 혜택 '와우할인'은 폐지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음식가 가격이 3만 원을 넘거나 배달 거리가 짧을 때 10% 할인 혜택이 유리하고, 단가가 낮거나 거리가 먼 곳의 가게에서 배달 주문할 경우 무료 혜택이 유리하다고 본다. 5월 말 와우할인이 폐지되면 일부 소비자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기존보다 축소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배민이 할인과 무료를 고정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러한 소비자들 까지도 끌어안기 위한 속내로 읽힌다. 아울러 작년 실적 성장세가 쿠팡이츠에 대한 반격 수위를 높이는 데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배민은 작년 매출이 3조4155억 원으로 전년대비 15.9% 신장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메뉴 추천·매출 관리… AI로 소상공인 잡기 나선 LG U+

‘우리가게패키지 AX솔루션’ 출시
가게에 AI 적용 통합솔루션 도입
단순 전화받기 넘어 예약 주문도
2027년까지 매출 2000억 목표

LG유플러스가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AI 솔루션을 강화하고, B2B(기업간거래)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 2027년까지 해당 분야에서 누적 매출액 2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이를 통해 소호 시장 1위 자리를 쟁탈한다는 포부다.

LG유플러스는 1일 SOHO(소상공인) 고객 특화 통합 솔루션인 ‘우리가게패키지 AX솔루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AX란 AI와 DX(Digital Transformation)의 합성어를 뜻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AI가 적용된 관리솔루션으로 디지털화해 점주와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솔루션은 △U+AI 전화 △U+AI예약 △U+웨이팅 △U+키오스크 △U+오더(테이블 오더 서비스) △U+포스 등 총6가지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고객은 우리



박성을 LG유플러스 기업사업그룹장(전무)이 1일 용산사옥에서 소규모 자영업(SOHO) 고객 특화 통합 솔루션인 ‘우리가게패키지 AX(AI를 통한 디지털 전환)솔루션’ 출시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가게패키지 앱을 통해 전체 여러 솔루션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각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방문 손님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에 모아 활용할 수 있다. AI가 단순 전화를 받는 걸 넘어, 방문 주기 등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직접 고객에게 메뉴를 추천하고 예약 주문을 관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박성을 기업사업그룹장(전무)은 “최

근 단순히 매장에 DX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토탈 솔루션에 대한 고객 니즈가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게패키지 AX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솔루션 출시를 위해 LG유플러스는 6개월간 직접 ‘식당연구소’라는 식당을 운영했다. 점주와 내방 고객으로서 불편함과 편리함을 깨닫고, 이를 상품에 녹여냈

다는 설명이다.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용산에 2호점도 낼 계획이다. 박 전무는 이렇게 쌓은 고객 경험이 경쟁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과의 차별점이라고 제시했다.

박 전무는 “SOHO 시장에서는 고객이 물리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오프라인에서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고, 예약·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보다 고객 경험을 측면

에서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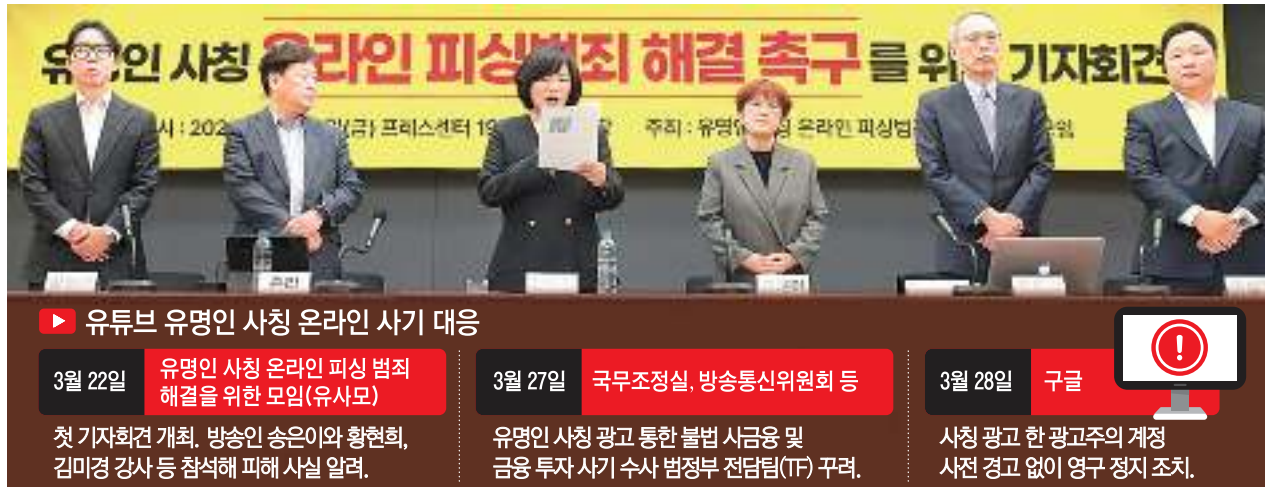
LG 유플러스는 6가지 솔루션을 통해 쌓은 데이터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고민하고 있다.

박 전무는 “방문 전 예약 방법부터, 만족도, 고객이 떠나고 난 뒤 방문주기 등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상공인)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고민하고 그림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현재 LG유플러스의 소상공인 분야 매출은 1500억 원 정도이다. 2027년까지 누적 매출 7000억 원을 목표로 전체 매출의 10% 내외를 달성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30~40만 정도의 가입자 수를 달성해야 한다.

박 전무는 “2027년 소상공인 통신매출은 3000억 원 규모로 시장 점유율은 30~33%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 “무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한편, 통신과 함께 사장님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을 통한 솔루션을 통해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사칭 피싱’ 유명인 해결 호소 뒤늦게 칼 빼든 구글과 정부

“원래 신뢰하던 김미경 강사가 주식을 가르쳐준다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가입했어요.” 박 모 씨는 유튜브에서 김미경 강사가 알려준다는 주식투자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했다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했다. SNS 내 투자자 수십 명은 ‘죽집계강의’를 듣고 수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자랑했다. 이같은 수익물에 박 모씨 역시 수업에서 추천해 준 종목에 투자했고, 단기간에 1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

이후 SNS 회원들은 공동투자자 900%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고, 박 모씨는 홈페이지딩시스템(HTS)을 설치했다. 투자금이 부족하다 해 돈을 빌려 1억5000만 원도 마련했다. 이 공동투자자는 수익률 1000%를 달성했다며 끝났고, 이들은 선세금 1억 원을 요구했다. 돈줄이 마른 박 모씨는 대출까지 받아 납부했다. 수익금만 기다리며 심지어 수수료 1억 원도 입금했다. 그러나 수익금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감지한 박 모씨는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자신을 사칭한 유명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없어 피해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규제 당국과 플랫폼이 손을 놓고 있어서다. 결국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가 등장했다.

최근 유튜브 등서 사칭 광고 기승
피해 늘자 유명인 직접해결나서
구글, 경고 없이 계정 영구정지
정부, TF 꾸려… 늦장 대응 논란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자 이제야 정부와 해외 플랫폼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일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광고한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는 다른 정책 위반 시 경고 조치를 거친 후 정지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위반 여부에 판단에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글의 이같은 강력 조치는 지난달 22일 유사모가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서야 마련됐다.

정부 역시 유사모의 행동 이후 지난달 27일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자금 및 금융 투자 사기를 수사하는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렸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올해 AI사업 본격화… 모든 역량 쏟을 것”

한컴 ‘투톱’ 변성준·김연수 대표
주주서한 발송… 세계 시장 공략

“올해는 한컴이 인공지능(AI) 사업을 본격화하는 원년입니다.”

변성준, 김연수 한글과컴퓨터 대표는 1일 ‘2024년 상반기 주주서한’을 발송하며 올해 AI사업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두 대표는 주주서한을 통해 “지난해 AI와 클라우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분야에 주력한 결과 보유 기술의 모토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2024년을 AI 사업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삼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컴은 올해 초 포티투마루 투자, 한컴 이노스트림(엡클립소프트) 인수에 이어 최근 스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에 투자하는 등 AI사업의 포트폴리오 다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후에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AI 밸류체인을 구축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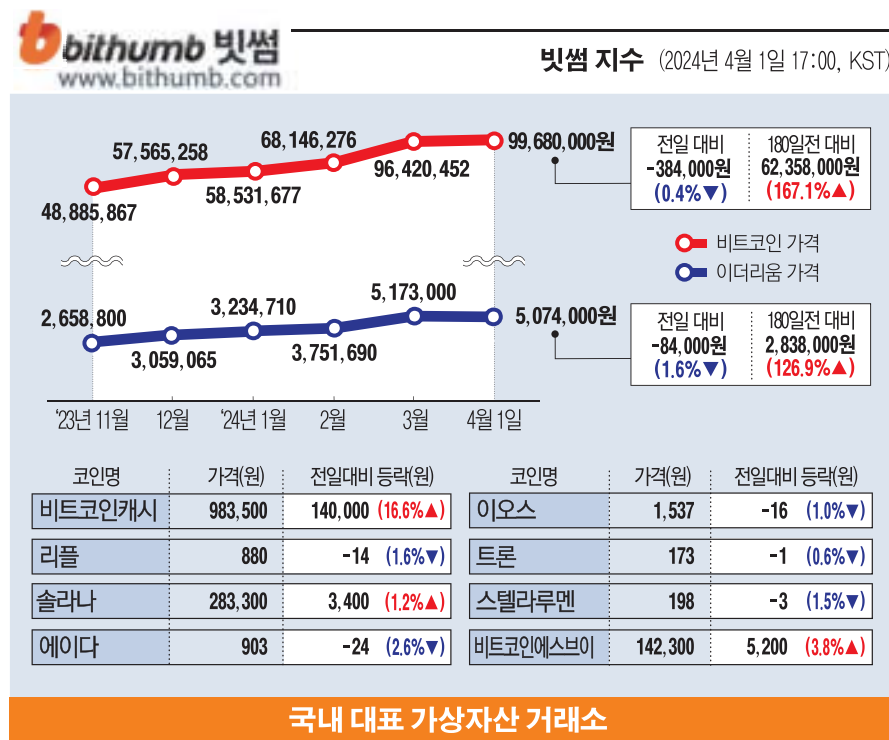
올해 AI 질의응답 솔루션 ‘한컴 도큐먼트 QA’와 AI 활용 지능형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 어시스턴트’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AI 자동문서 작성 기능을 추가한 ‘한컴독스 AI’ 정식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주력 사업을 기존의 문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와 연동이 가능한 AI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표준 AI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한컴은 올해 5년 만에 실시한 배당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배당을 실천하겠다는 주주친화 정책도 강조했다.

또 엄격한 경영관리 체제를 통한 재무적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 등을 약속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개량신약·ADC… 제약사 주총 달군 ‘미래 먹거리’

〈항체약물접합체〉

국내 제약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계획을 대거 공개했다. 기업들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글로벌 제약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신규 성장 기반을 갖추거나, 기존 품목의 성장 확대에 집중하는 등 회사의 미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달 28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날 김 대표는 “현재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항체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제 등 신규 모달리티를 창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량신약, 일반의약품, 디지털 메디신(전자약), 라이선스 품목 등 경쟁력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근당은 세상에 없던 신약(First-in-

class)과 미충족 수요 의약품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지난해 글로벌 빅파마 노바티스에 희소난치성 유전병인 사르코-마리-투스병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CKD-510’을 1조7000억 원대에 기술 이전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또 네덜란드 시나픽스와 ADC 접합체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ADC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웅과 대웅제약도 지난 달 28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발전을 다짐했다. 윤재춘대웅대표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영역에 걸쳐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최

고의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대웅제약은 차세대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신약단일품목으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1품1조’ 비전 실현 계획을 선언했다. 연구개발(R&D)을 통한 신규 파이프라인 강화를 통해 지난해 약 1조36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에도 성공하며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입



지난달 28일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종근당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영주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종근당홀딩스

증받고 있다.

지난해 사업 재정비 및 효율화 추진을 위해 경영 쇄신을 단행한 일동제약은 올해 주력 사업에 집중한다. 일동제약그룹은 지난해 임원을 20% 이상 감원하고 차장 이상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등 경영 쇄신에 나섰다. 또 일동제약의 R&D 부문을 물적 분할해 자회사 유노비아를 11월 출범시켰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윤웅섭 일동제약대표는 “올해는 주력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마케팅 강화를 통해 외형과 수익성 증대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목표달성과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 문화 조성 and 함께 조직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삼진제약은 올해 내실 경영을 통한 안정적 성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한다. 지난달 2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는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지만, 토털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진제약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부문, 건강기능식품 파트의 컨슈머헬스 부문, 의료기기 파트의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의 사업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특례상장 1호’ 헬릭스미스·셀리버리 연이은 악재

코스닥 2·9위 영광 어디로?

셀리버리, 잇단 감사의견 거절
이달 개선기간 끝… 상폐위기

헬릭스미스, 계속된 임상 실패
주가 31만원서 4000원대로 추락

국내 처음 기술·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헬릭스미스와 셀리버리가 위기를 겪고 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이던 두 회사는 예전 명성을 잃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힘겹게 새 최대주주를 찾았지만, 올해 1월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미국 내 임상 3상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다. 셀리버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헬릭스미스는 2005년 기술특례 상장 1호,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특례 상장 1호 회사다.

헬릭스미스는 1996년 설립된 유전자 치료제 기업이다.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로 당뇨병성 신경병증, 사르코마

1호 기술·성장성 특례 상장 헬릭스미스·셀리버리 *출처: 각사

HELIKSMITH 헬릭스미스		CELLIVRY Living & Health, Inc. 셀리버리	
1996년 11월	설립일	2014년 3월	
2005년 12월	상장일	2018년 11월	
기술 특례	상장 유형	성장성 특례	
엔젠시스(DNA 치료제)	기술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 기반 치료제	
• 당뇨병성 신경병증 • 당뇨병성 족부궤양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사르코마리투스병	주요 파이프라인	•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 • 헤르페스 바이러스 • 고도비만/당뇨치료제 •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리투스병 치료제 등을 개발 중이다. 신약개발 기대감에 한때 시총 2위에 올랐고, 회사 주가는 31만2200원(종가 기준)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연이은 임상 실패로 주가는 3000원대까지 하락했다. 4월 1일 종가 기준 주가는 4495원, 시총 순위는 418위다.

엔젠시스 미국 임상에 대해 회사 측은 “임상 데이터양이 방대해 결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임상 개발과 투자전략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1년 새 최대주주가 두 차례 변경됐다. 2022년 카나리아바이오에 경영권을 넘겼지만, 유상증자대금

납입지연으로 작년 바이오솔루션을 새 최대주주로 맞았다. 이 과정에서 소액 주주연대와 대립했다.

다만 2004년 공동개발 계약을 맺은 중국파트너사 노스랜드바이오테크가 진행한 엔젠시스의 중증하지허혈 임상 3상은 성공했다. 노스랜드가 엔젠시스를 중국에 시판할 시 헬릭스미스는 일정 기간 로열티를 받는다.

셀리버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완전자본잠식 등에 상장 폐지 위기다. 셀리버리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생체 내 약리물질 세포 내 전송기술(TSDT) 플랫폼 기반 치료제다. 이 플랫폼으로 파

킨슨병, 헤르페스, 골형성 촉진제 등 5개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신약개발 기대감에 주가는 한때 38만3900원(종가 기준)까지 상승, 코스닥 시총 9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신약개발에 난항을 겪으며 적자에 빠졌고, 2022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해 3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2023년 감사보고서도 감사의견 거절이다. 이런 가운데 셀리버리는 지난달 11일 자본 전액잠식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자본잠식률은 233.1%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약 14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달 13일과 29일 열린 임시·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측과 주주들과 마찰을 빚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기술특례나 성장성특례로 상장을 많이 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잠재력을 기준으로 상장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미국암학회 가는 ‘루닛’ 최신 연구성과 7건 발표

루닛은 5일부터 10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2024 미국암학회(AACR 2024)’에서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최신 연구성과 7건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연구로 총 19만4259개의 환자 샘플을 통해 ERBB2 유전자 변이와 HER2(인간표피 성장인자 수용체2) 발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한다. HER2 발현 수준은 암 치료 방법 선택과 예후 결정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연구진은 루닛 스코프를 활용해 이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특정 ERBB2 변이 유형(ex20ins, S310x)을 가진 암 세포에서 HER2가 더 강하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했다. ex20ins 변이를 가진 비소세포폐암 환자와 S310x 변이를 가진 요로상피암,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환자에서 두드러졌다.

서범석 루닛대표는 “올해 AACR 학회에서는 그동안 발표했던 면역항암제 반응 예측에 대한 연구를 넘어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갖거나, 특정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옵션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장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소아환자 관절건강 개선”

중증 A형 혈우병 비항체 환자 대상
활막비대증·관절출혈 등 증상 줄여

JW중외제약은 중증 A형 혈우병 비항체 소아환자 대상의 ‘헴리브라(성분명에 미시주맵)’ 장기 투여 연구 중간결과와 환자들의 관절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기전의 혁신신약이다. 혈액응고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됐다.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기존 치료제(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 항체 환자뿐만 아니라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예방효과가 지속하는 특징도 있다.

미도리 시마 일본 나라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은 기존 제8인자 제제로 치료하던 12세 미만 중증 A형 혈우병 비항체 환자 30명 대상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팀은 최근 미국혈액학회 연례회의(ASH 2023)에서 약 3년(145주차)이 지난 시점의 중간결과 데이터를 공개했다.

연구결과, 관절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활막이 과도하게 커지는 ‘활막비대증’과 혈액 내 헤모시데린 색소가 침착돼 피부가 검붉게 변하는 ‘헤모시데린’ 증상을 겪은 환자 수는 투약 1주차에 각각 10명이었으나 145주차에 2명으로 줄었다. 또 투약 1주차에 0.90점이었던 ‘혈우병 관절건강 점수(HJHS)’는 145주차에 0.44점으로 개선됐다. HJHS는 혈우병 환자들의 관절건강을 평가하는 지표로 관절 손상이 심할수록 점수가 높다. 치료가 필요한 관절 출혈 빈도는 0.4회에서 0.2회로 개선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바이엘 코리아, 결식아동에 ‘사랑의 도시락’

지속가능개발목표 ‘기아종식’ 기여

바이엘 코리아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인 ‘기아 종식(Zero Hunger)’을 위해 지난달 29일 이진아 대표 등 6명의 컨트리 리더십팀이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에서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바이엘 코리아는 결식아동 지원 활동을 통해 헬스케어와 영양 분야에 특화된 포트폴리오에 부합하는 사회 참여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사랑의 도시락 참여 활동을 연간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이날 봉사에



지난달 29일 컨트리 리더십 팀이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에서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바이엘 코리아

참여한 이진아 대표는 “인류 건강과 영양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기아 종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기여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hsj@

불황에 스타일 구긴 패션업계… 경영진 연봉은 두자릿수↑

지난해 패션업계 불황에도 패션기업 오너 일가와 경영진의 연봉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늘었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주요 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다소 올랐다. 반면 휠라홀딩스만 임직원의 평균 급여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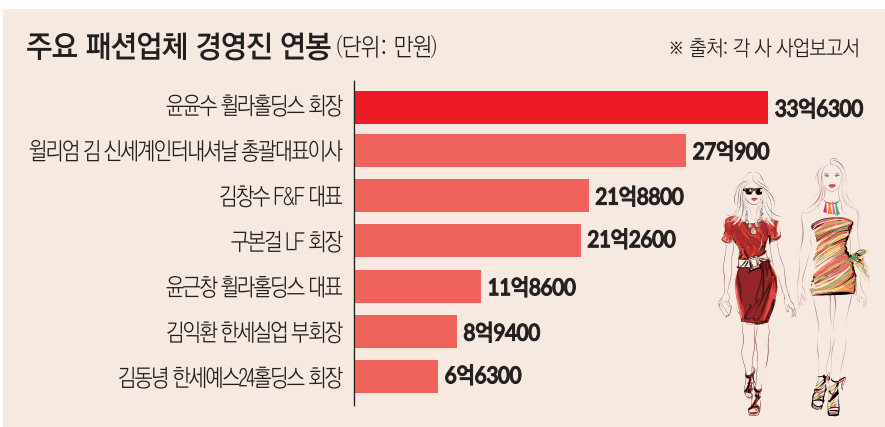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휠라홀딩스, 신세계인터내셔널, F&F(에프앤에프), LF(엘에프) 등 주요 패션기업 경영진의 보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패션업계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경영자는 윤운수 휠라홀딩스 회장으로 급여 17억3500만 원, 상여 16억 원, 기타 근로소득 2800만 원 등 총 33억6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25억6600만 원) 대비 31.1% 늘어난 금액이다. 윤 회장의 아들인 윤근창 휠라홀딩스 대표는 휠라홀딩스에서 11억860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직전년도

삼성물산 제외 영업이익 반토막 속
주요기업 직원 연봉도 다소 올라

휠라홀딩스만 임직원 급여 줄어
반면 윤운수 회장 ‘연봉킹’ 등극

연봉 7억3600만 원보다 61.1% 늘어난
금액이다.

윌리엄김 신세계인터내셔널(SI) 총괄 대표이사는 지난해 급여 21억6500만 원, 상여 3억6600만 원, 기타근로수당 1억7800만 원 등 총 27억90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전년 대비 88.5% 늘어난 액수다. 김창수 F&F 대표는 지난해 21억88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전년도 연봉 17억3900만 원보다 25.8% 늘었다. 구분 걸 LF 회장도 전년 연봉 17억3300만 원보다 22.7% 늘어난 21억2600만 원의 보



수를 챙겼다.

반면 에스24그룹 창업주인 김동녕 회장은 지난해 지주회사인 한세에스24홀딩스에서 전년 연봉 7억3900만 원보다 10.4% 줄어든 6억63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김 회장의 차남인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한세실업에서 전년보다 8.3% 늘어난 8억9400만 원을 보수로 챙겼다.

휠라홀딩스의 오너인 윤운수-윤근창 부자가 업계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챙겼지만, 휠라홀딩스 임직원의 지난해 보수는 패션업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휠라홀딩스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전년(1억100만 원) 대비 11.9% 줄어든 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 회장과 임직원의 연봉 차이는 무려 37배에 달한다. 경기불황과 실적 악화에도 휠라홀

딩스 오너 일가는 두둑하게 급여를 챙겼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LF와 신세계인터내셔널, 한세실업 등은 지난해 직원들에게 전년 대비 늘어난 연봉을 지급했다. 지난해 LF 임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8100만 원으로, 전년(6300만 원) 대비 28.6% 올랐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전년(7100만 원) 대비 4.2% 늘어난 7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삼성물산 패션 부문을 제외한 대다수 패션기업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휠라홀딩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4조66억 원, 30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1%, 30.2% 줄었다. LF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66.4% 줄어든 622억 원을 기록했고, 신세계인터내셔널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57.7% 감소한 487억 원에 그쳤다.

김유연 기자 kyy0907@



헤지스 로잉 클럽, 롯데백서 가입하세요 롯데백화점은 11일까지 본점 지하 1층 코스모니지 광장에서 헤지스와 리복이 협업한 ‘헤지스 로잉 클럽 스토어’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헤지스 로잉 클럽 스토어는 수상 스포츠 조정(로잉)을 테마로 정해 매장 인테리어와 콘텐츠를 조정 콘셉트로 꾸몄다. 조정 트레이닝 복, 프레피 룩(Preppy Look) 스타일 의류, 헤지스 대표 의류 라인 아이코닉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프레피 룩은 신사 스포츠로 유명한 조정을 즐겼던 엘리트 대학생들의 패션을 말한다. 팝업 매장 안에 로잉 머신을 설치해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 목표 기록을 달성한 고객에게 헤지스·리복 스포츠 양말을 선착순 증정한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흡수 완료… 빅2 맹추격?

〈CU·GS25〉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과의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나선다. 통합 작업에 다소 시일이 걸리면서 업계 빅2인 CU와 GS25와의 격차가 벌어지자, 세븐일레븐은 올해 상품 경쟁력 강화, 관리비용 일원화를 통해 실적을 개선해 이들 뒤를 바짝 쫓겠다는 목표다.

1일 롯데지주 IR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븐일레븐의 연간 매출액은 5조69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반면 연간 영업손실은 551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49억 원)보다 500억 원 가량 적자폭이 커진 규모다. 미니스톱 통합으로 인해 점포와 물류센터에서 기업인수 합병 후 통합관리(PMI) 비용이 커졌고 물류비가 늘어난 탓이다. 세븐일레븐은 2022년 4월 한국미니스톱을 인수, 그해 5월부터

작년 매출 신장률 아직 부진

고매출 점포 중심 리뉴얼 확대

올해부터 합병 시너지 기대

작년까지 2600여 개의 미니스톱 점포를 세븐일레븐으로 전환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롯데씨비이에스711(미니스톱 운영법인)’을 최종 합병, 미니스톱 통합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브랜드 전환 협의가 안된 점포는 전국 10여 개점에 불과해 이달 내 모두 완료 예정이다.

이제 세븐일레븐은 매출 상승, 수익성 개선 등 두 가지 숙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븐일레븐의 매출을 살펴보면 미니스톱 인수 효과로 2022년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27.5%를 기록했으나, 2023년 4%에 머물렀다. 2023년 국내 편의점 빅2인 CU와 GS25의 매출 신장

률이 6~7%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세븐일레븐은 영업이익률도 2022년 -0.1%에서 지난해 -1%로 악화됐다.

세븐일레븐은 통합 이후 전략으로 ‘고효율·고성과 창출’을 제시했다. 우선 우량점포 입지를 중심으로 신규 출점을 하고, 고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리뉴얼을 확대해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자제 브랜드(PB) ‘세븐셀렉트’를 중심으로 가성비와 프리미엄 상품을 늘리고 글로벌 세븐일레븐과 네트워킹을 활용해 해외 편의점 인기상품 직소싱에도 힘을 쏟는다.

수익성을 위한 비용절감에도 나선다. 세븐일레븐은 미니스톱과의 통합으로 볼륨이 커지면서 기존보다 구매 협상력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미니스톱 물류센터 통합, 관리비용 일원화에 따라 올해 합병 시너지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다. 유승호 기자 peter@

사명에서 한국 덴 ‘콜마’… 해외로 ‘飛上’

한국콜마홀딩스 → 콜마홀딩스
“세계 화장품·의약품 산업 선도”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가 사명을 ‘콜마홀딩스’로 변경한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확장성을 반영하고, 통합 브랜드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한국콜마홀딩스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한국콜마홀딩스에서 콜마홀딩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새 사명은 이날부터 적용하며, 영문은 ‘KOLMAR HOLDINGS CO.,LTD.’로 표기한다.

이번 사명변경은 콜마홀딩스가 한국을 넘어 전세계 콜마를 이끈다는 확장의 의미를 담았다.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콜마홀딩스가 선두에 서서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사들의 진격을 진두지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2022년

콜마의 원조 기업인 미국 콜마로부터 글로벌 상표권을 100% 인수하며 한국콜마가 전세계 중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콜마홀딩스는 콜마(KOLMAR)라는 통합 브랜드로 콜마그룹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법인과 ‘하나의 콜마’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향후 북미 시장에서 해외 거점을 추가 구축하는 것은 물론 유럽, 아시아 등 신규 시장에 뷰티·제약·건강기능식품 영역을 확장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미래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장동력을 추가 발굴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화장품은 물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리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코코아값 2배 급등… 국내 초콜릿 업체는 ‘苦’

〈두달 새〉

기후변화와 생산량 감소로 코코아 가격이 두 달 새 2배 이상 치솟으면서 국내외 초콜릿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네슬레, 허쉬 등 글로벌 초콜릿 업체들은 초콜릿 함량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국내 업체도 비축분 소진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일 미국 뉴욕 국제선물거래소(ICE)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5월 인도분 코코아 가격은 톤(t)당 97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약 2달 전(1월 29일) 가격 4732달러와 비교하면 106.4% 더 비싸다. 톤당 2000달러대 수준이었던 코코아 가격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름세다. 11월 4000달러 선을 넘었고 꾸준히 올라 올해 3월 중순 8000달러를 돌파했다. 이후에도 가파르게 오르며 1만 달러를 넘길 기세다.

코코아 가격이 계속 오르자 글로벌 초콜릿 업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글로벌 업체들 초콜릿 함량 줄여

현 상황 지속 땀 가격 인상 불가피

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코코아 가격이 뛰면서 제과업체들이 초콜릿 제품 용량이나 코코아 함량을 줄이는 수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초콜릿에 땅콩버터, 크림 등을 추가해 부피를 채운 제품도 늘고 있다. 같은 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현지 소비자단체 ‘위치’를 인용해 소매점에서 올해 부활절 달걀 모양 초콜릿은 가격이 오르거나 용량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코코아 함량을 줄인 상황이다. 1월 네슬레는 영국에서 초콜릿 함량이 기존 제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적은 신제품을 출시했고, 허쉬는 ‘초콜릿 프로스티드 도넛 킷킷’ 제품의 초

콜릿 코팅을 절반으로 줄였다.

국내 업체들은 아직 초콜릿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은 없지만,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다. 글로벌 업체들처럼 가격은 유지하되 함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국내 업체들의 경우 통상 수 개월분의 코코아를 비축해 놓기 때문에 단기간의 가격 변동은 버틸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코코아 가격 인상이 장기화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당장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지만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 코코아 가격은 지난해 여름 이상 기후로 산지에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치솟게 됐다. 여기에 코코아 농부들이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경작물을 바꾸면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더욱 줄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김지영 기자 kij42@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친환경 세상을 위해,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NH농협금융은 그 속도를 한 층 높이고 있습니다
전사적 친환경 활동은 물론, 친환경 기업에 투자·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사회적 역할을 다 합니다
농업, 농촌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이념으로 성장해 온 태생적 친환경 그룹인 NH농협금융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스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국적·나이·직업 모두 엇비슷… “女風도 구색맞추기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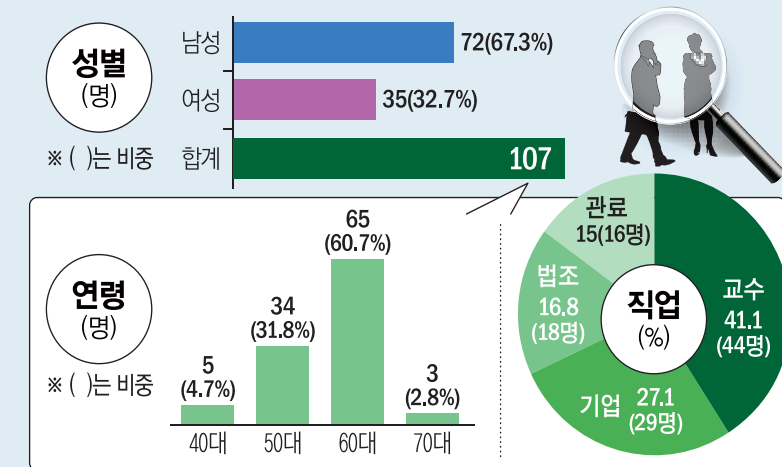
K-사외이사 보고서 ① 다양성, 이상과 현실 사이

#2월 28일(현지시간) 애플 주주총회. 완다 오스틴 박사가 사외이사로 선출됐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여성으로 첫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던 인물이다. 오스틴 박사는 사외이사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애플 이사회의 일원이 돼 영광스럽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스틴 박사의 합류로 애플 이사회는 앞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현대모비스는 3월 주총에서 AMD, 테슬라, 구글 등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케네스 위텍 텐스토렌트(Tenstorrent) 최고전략책임자(COO)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위텍 신규 사외이사는 전장과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시총 상위 50위 사외이사 선임 현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전 세계 화두가 됐다.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일찌감치 경영 거버넌스(G) 선진화에 나섰다. 그 중심에는 사외이사가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총수 중심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컨트롤 타워식 경영에 매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등 기술경쟁에서 이기려면 그 어느 때보다 총수의 판단을 보좌할 지원군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인적구성의 이사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외이사 유리천장은 ‘현재 진행 중’ = 1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상장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사외이사에 선임된 사람은 총 1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72명(67.3%) 여성은 35명(32.7%)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총 시즌 50대 상장사 사외이사에 선임되거나 후보에 오른 인물 10명 중 여성은 4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내 기업들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2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는 상장사는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기업마다 여성 임원을 영입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실제 유럽 국가 중에서는 상장사 당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 40%를 넘는 곳도 있다.

◇성별·연령·직업·국적 등… 다양성의 ‘다양화’ 필요해 = 국내 상장사들의 사외이사 다양성 부족 현상은 성별뿐만이 아

ESG경영이 ‘전세계 화두’지만 국내 ‘컨트롤 타워식 경영’ 매물

50대 상장사 60대 이사가 61% 교수출신 41%… 여성 33% 그쳐 글로벌 무대 활동은 5명에 불과 임기 6년 연임 제한 등 어려움도

니다. 평균 연령이나 직업, 국적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앞서 집계된 올해 주총에서 사외이사에 선임된 107명의 평균 연령은 61세(1963년생)다. 최연소는 카카오의 새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차경진 한양대 경영

정보시스템전공 교수(41세)다. 최고령은 셀트리온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에 오른 이순우 푸르매재단 어린이재활병원 이사장(74세)이다.

특히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65명(60.7%)에 달했고, △50대 34명(31.8%) △40대 5명(4.7%) △70대 3명(2.8%)이 뒤를 이었다.

사외이사는 경력별로는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가장 높은 비율은 교수 출신으로 총 44명(41.1%)이고, △기업인 29명(27.1%) △법조인 18명(16.8%) △관료 출신 16명(15%) 등이 뒤이었다.

인종이나 국적, 경력에 대한 활동 범위 등은 국내에 압도적으로 쏠려있었다. 외국인 사외이사의 경우(한국계 제외)는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후보인 키스 위텍

(Keith Witek) 테스토렌트 최고기술책임자(COO)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해외를 주 무대로 활동 중인 이들도 네이버 사외이사 후보인 이사무엘 인다우어스 공동창립자 등 5명이 전부였다.

한편 당장 국내에선 사외이사의 다양성 제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외이사 경험이 있는 한 대학 교수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성별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기업 내에서도 많아졌지만, 이마저도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며 “사외이사 임기가 정해져 있어 다양한 연령이나 직업, 국적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한 기업에서 사외이사는 6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은행장 만난 김주현 “ELS사태 막을 ‘책무구조도’ 고민해야”

〈금융위원장〉

“7월부터 시행… 형식적 운영 안돼 내부통제 실질적 해결책 돼야” 강조 조용병 “국민편익서 은행 개선 추진”



한화손보, 여성 상해 보장 ‘운전자 상해보험’ 선보여

한화손해보험은 여성운전자 특화 담보를 탑재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복발 및 등·발목, 발·손목, 손’ 등 여성운전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상해 부위를 담보하는 △여성주요상해진단비(상해부위별 연간 1회한)를 신설하고 △여성생애 1~5종상해수술비 특약을 탑재해 여성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 보장에 집중했다.

또한, 차대차 사고 시 차량에 동승한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했을 경우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한다. 이 외에도 고객은 △반려견 배상책임 △반려견·묘 장례지원비 △반려견·묘 실손의료비 등 특약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 고유 위험인 ‘비용담보’도 강화했다. 여성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중상해(1~7급) 시 담보하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다. 정성원 기자 jsw@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며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이번 홍콩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볼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7월 3일)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가 7월부터 도입되면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



김주현(맨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은 내부통제를 사건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아무췌로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 과제 이행 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추진을 목표로 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했다.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

행과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왜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제도 혁신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에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시설 증대를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 배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 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위도 우리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선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권의 소비자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영 기자 lry0403@

ELS 배상·상생금융에 ‘발목’… 4대 금융지주 실적 ‘암울’

1분기 순익 8.4% ↓ 4.5조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
가연계증권(ELS) 배상과 상생금융에 따
른 영향으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
·우리금융)의 1분기 실적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이 영향으로 금융지주별 지
출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리딩금융’
자리를 놓고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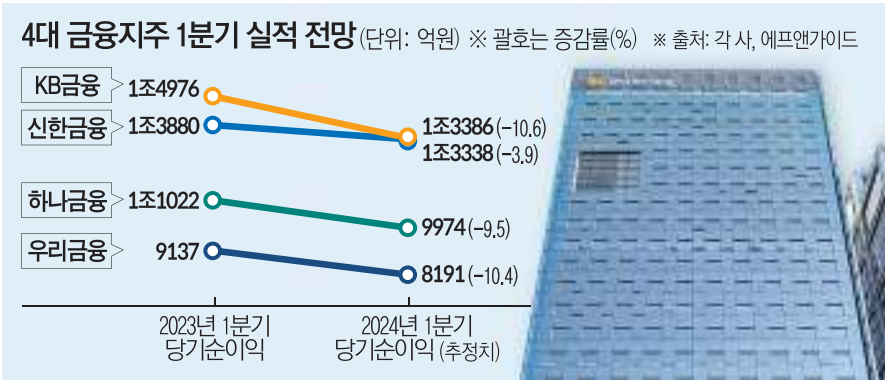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
르면 올해 1분기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
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4
조4889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 1
분기(4조9015억 원)보다 8.4%(4126억
원) 줄어든 것이다.

금융지주별로 KB금융이 1조3386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4976억 원) 대비
10.6%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신
한금융이 1조3338억 원, 하나금융 9974
억 원, 우리금융이 8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 9.5%, 10.4% 감소할 것
으로 추정된다.

KB금융 배상·상생 지출 가장 많아 순이익 -10.6%로 최대폭 감소 신한금융이 ‘리딩금융’ 뺏을수도 하나 vs 신한 ‘리딩뱅크’ 경쟁 치열

1분기 실적이 줄어드는 데는 홍콩
ELS 손실에 대한 배상이나, 상생금융 시
행에 따른 비용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홍콩 ELS를 판매한 은
행들이 모두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
상을 결의한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
은행은 일부 투자자와 협의를 통해 이미 배
상금 지급에 나섰다.

은행별 홍콩 ELS의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액은 △KB국민은행 4조7447억 원
△신한은행 1조3329억 원 △하나은행
7380억 원 △NH농협은행 7330억 원 △
SC제일은행 6187억 원 △우리은행 249
억 원 순이다. 은행별로 현재 5700선에
머물러 있는 홍콩H지수를 고려하면 상반



기 만기 도래분의 손실률 50%, 금융감독
원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평균 손실 배
상률 40%를 적용하면 상반기 배상액만 1
조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온다. 은행별로 △국민은행 9489억 원 △
신한은행 2666억 원 △하나은행 1476억
원 △농협은행 1466억 원 △제일은행
1237억 원 △우리은행 50억 원이다.

배상금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KB금융의 경우 그만큼 순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당장 1분기에는 KB금융이 리딩
금융을 수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배상 추진 속도에 따라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른 반사이익
으로 신한금융이 다시 리딩금융 자리를 탈
환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도 치열한 경쟁
이 예고된다. 하나은행이 지난해 3조
4766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2년 연속
리딩뱅크 자리를 수성한 가운데, 신한은
행 3조4677억 원, 국민은행 3조2615억
원, 우리은행은 2조5250억 원을 기록했
다. 올해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리딩
뱅크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

편, 국민은행은 경쟁 구도에서 멀어질 것
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상생금융 지출도 관건이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
금융지원 이자 환급프로그램을 통해 1조
5000억 원을 환급한다. 또한, 이달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포함해 소상공
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 원 규
모의 자율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은행별로 상생금융에 투입되는 비용만
국민은행이 3721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하
나은행 3557억 원, 신한은행 3067억 원,
우리은행 2758억 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홍콩 ELS 사태로
인한 은행권의 자율배상 추진과 상생금융
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 은행별로 회계
반영 시점을 어떻게 하는지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보다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리딩금융’과 ‘리딩뱅
크’ 자리를 놓고 금융지주와 은행 간 치열
한 경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주담대 금리 올리자… 가계빚·주담대 11개월만에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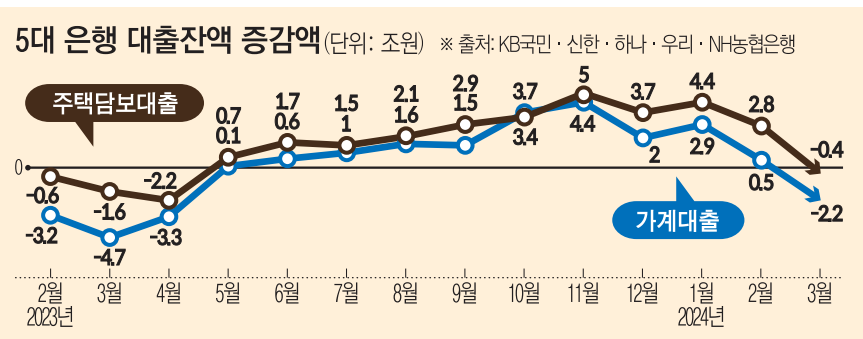
지난달 가계대출 2.2조 ↓ 693.6조
주담대도 4500억원 준 536.6조
기업대출은 오히려 8.5조 증가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스트레
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과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
담보대출이 줄면서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93조5684억 원으로
전월(695조7922억 원)보다 2조2238억
원 줄었다. 지난해 4월(-3조2971억 원)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이다.

가계대출이 줄어든 건 주담대가 감소
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
은 3월 말 기준 536조6470억 원으로 전
월(537조964억 원)보다 4494억 원 줄
었다. 주담대 또한 작년 4월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에 발맞춰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인상하
면서 감소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KB



국민은행은 지난 2월 주담대 금리를 연
0.23%포인트(p) 인상했고, 우리은행도
3월 말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1~0.3%p 올렸다. 신한은행은 이날부
터 주담대 금리를 0.1~0.3%p 인상했
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속도 조절
을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면서 “스트레스 DSR 등 규제와 함께 고금
리 기조 지속,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시장
상황이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데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잔액도 줄
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
준 118조5446억 원으로 한 달 전(120조
3323억 원)보다 1조7877억 원 감소했

다. 신용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02조
4021억 원으로 전월(103조6851억 원)
보다 1조2830억 원 쪼그라들었다.

반면, 기업대출은 증가세는 쉽게 잡히
지 않고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기업대
출 잔액은 785조1515억 원으로 전월
(776조7107억 원)보다 8조4408억 원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대
출 잔액은 634조9017억 원에서 640조
672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1655억 원 증
가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이 141조8090
억 원에서 145조843억 원으로 3조2753
억 원 확대됐다.

전체 원화대출 규모는 1499조4477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5014억 원 증가했
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한화생명·설계사 윈윈… 작년 흑자 전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3년 첫 배당

한화생명은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
(GA) 한화금융서비스가 지난해 흑자
전환을 계기로 첫 배당을 실시했다고 1
일 밝혔다. 11.1% 지분을 보유한 한투
PE를 대상으로 약 15억 원을 배당됐다.

한화생명 역시 한금서의 시장 경쟁력에
힘입어 지난해 신계약 연납화보험료
(APE) 전년 대비 52% 상승, 보장성
APE 전년 대비 114%로 대폭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을 2조5000억 원 달성했다.

GA영업의 근간인 설계사(FP)들의
소득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제판분
리 직전인 2020년 4221만 원에서 2023

년에는 6942만 원까지 상승한 것이다.
올해 1분기에는 7139만 원까지 올랐다.
3년 만에 2배 가까운 기록적인 성장이다.
1억 원 이상 설계사도 전체 FP의
22.8%에 이른다.

한화생명은 한금서, FP 모두 윈윈
(Win-Win)하며 초단기에 성과를 입증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근 한화생명금융
서비스 대표이사는 “지금의 성과는 ‘제판
분리’라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효과”라며 “고객에게 최고·최적의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에 충신했고, 영업 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오픈저트리·터치를 개발
했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jsw@

국민카드, 펫보험료 20% 할인 ‘마이펫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KB손해보험과 손잡
고 펫보험 가입 고객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담은 ‘KB손해보험 마이펫카드’
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마이펫카드’는 KB손보 펫 보험에 가
입한 고객을 위한 신용카드로, 펫 보험료
결제 시 20% 할인을 월 1만 원까지 제공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동물병원,
반려동물 업종 20% 할인 △배달 및 간식



(제과·커피·패스트푸드
업종, 배달의민족,마켓컬
리·요기요) 10% 할인 혜
택을 각각 월 3000원까지
제공한다. 이카드는 전월
실적 40만 원 이상이면 할

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연회비는 2만 원이
며 카드 발급 신청은 KB페이에서 가능하
다.

정상원 기자 jsw@

현대카드 새 슬로건은 ‘아키텍트 오브 체인지’ 〈변화의 설계자〉

Architect of Change [Hyundai Card]

고객불편 해소… 상품체계 개편

현대카드가 ‘변화의 설계자’라는 뜻의
새로운 슬로건 ‘아키텍트 오브 체인지
(Architect of Change)’를 1일 공개했
다.

아키텍트 오브 체인지는 상품, 브랜
딩, 디지털을 넘나들며 다양한 변화를 통
해 신용카드업을 설계해 온 현대카드가
또 한 번 ‘변화의 설계자’가 돼 현대카드
만의 ‘물’과 ‘영역’을 만들어 간다는 태도

를 표명한 슬로건이다. 현대카드는 아키
텍트 오브 체인지를 선언하며 올해 가장
먼저 추진하는 변화는 상품 체계의 개편
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카드는 기존 카드시장의 복잡한
혜택 구조, 까다로운 이용 조건, 유명무
실한 서비스로 인해 고객들이 겪는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상품 개편을 추진
하기로 했다.

현대카드 측은 “복잡한 신용카드의 서
비스와 혜택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정
리하고 모든 카드에 걸쳐 통일성 있는 체
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고객이 신용카

드를 쉽게 선택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필요할 때 포인트나
캐시백을 먼저 받아 사용한 후 전전히 상
환할 수 있는 M·X 긴급직접 서비스 등 그
동안 고객들의 요청이 있었던 부가서비스
도 새로 탑재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현대카드는 2005년 국내 최초로 출시
한 VVIP카드 더블랙을 필두로 프리미엄
카드 시장을 새롭게 열었다. 이와 함께
2015년 국내 최초 상업자표시신용카드
(PLCC)를 출시하고 국내외 챔피언기업
들과 함께 구축한 데이터 동맹 ‘도메인 갤
럭시(Domain Galaxy)’를 중심으로 세
계 최초의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PLCC
시장을 개척했다.

정상원 기자 jsw@

SBI저축은행, 업계 첫 주4일제 시범 도입

이달부터 월1회 금요일 휴무

SBI저축은행이 업계 최초로 임금 삭
감 없는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임직원의 복지 증대 차
원에서 4월부터 월 1회 주 4일제를 시범 도
입하고 본격 운영한다. 임직원들은 시범운
영 기간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을 선택해 주

4일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약 1년간 시범운
영을 거쳐 조직 운영 및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검증되면 점
차 확대될 예정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
는 “디지털 경쟁력 강화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비
대면 금융을 정착했고, 직원들의 생산성도
늘어나게 되면서 주 4일제 도입이 가능하
게 됐다”고 했다.

유하영 기자 haha@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반토막… 퇴직연금, 돌파구 기대

2월 운용 규모 8050억

‘알파고’ 인기와 함께 등장했던 로보어드바이저(RA)가 인공지능(AI)이란 든든한 우군에도 존재감이 희미하다. 로보어드바이저란 펀드매니저 대신 컴퓨터 알고리즘을 토대로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장이 커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국내 증권사한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은 로보펀드의 수익률이 너무 안정적이라 찾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 수준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나온다. 로보어드바이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말로는 머신러닝이니, 인공지능이니 하지만 사실 재무학 이론을 프로그래밍한 과거 계량(퀀트) 분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1일 코스콤이 운영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센터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 RA 운용금액은 8050억 원이었다. 1월 7932억 원, 지난해 말 7579억 원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7월 1조9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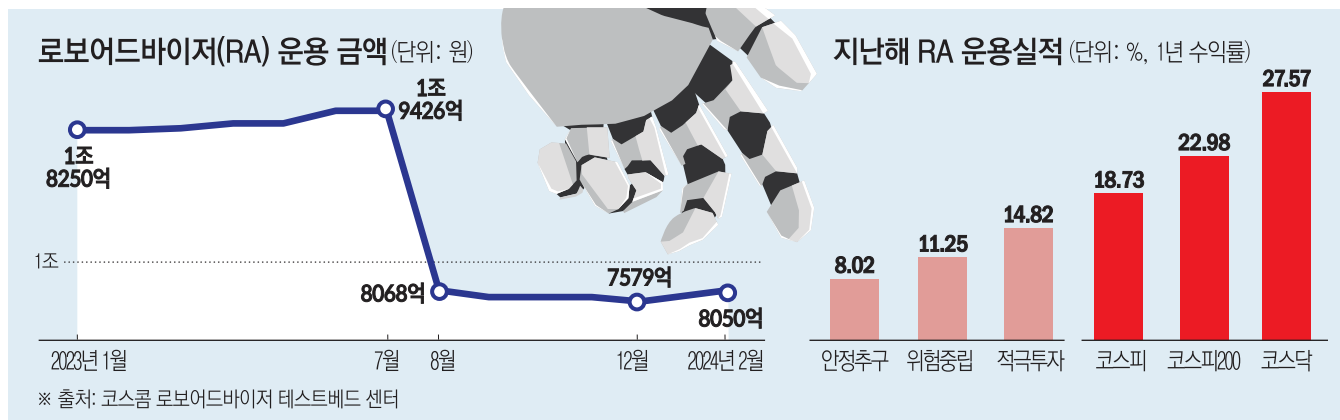
억 원에서 58% 급감
금융위 ‘RA 규제 합리화안’에
코스콤 사후 운용심사 나서며
작년 8월부터 은행권 대거 이탈

올 6월 퇴직연금 RA 일임 가능
업계, 증권·은행권 제휴 속도전

억 원에 대비해서는 저조하다.

작년 7월 2조 원에 육박했던 RA 운용금액은 8월 8068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코스콤이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사후 운용 심사를 하면서 은행권 운용금액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RA 하자가 이뤄진 8월 이후 RA 시장 총 계약금액은 7000억~8000억 원대를 오가는 중이다.

지난 2018년 하나은행이 발간한 ‘대한민국 로보어드바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5조 원, 2025년 3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



됐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무엇보다 수익률이 신통치 않다 보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RA의 평균 수익률이 벤치마크를 밑돌면서 RA 투자 성과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해 안정추구, 위험중립, 적극투자 등 RA 유형별 1년 평균 수익률은 각각 8.02%, 11.25%, 14.82%로, 같은 기간 코스피(18.73%), 코스피200(22.98%), 코스닥(27.57%) 등 시장 지표 대비 저조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6월부터는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본다. 4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

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간 퇴직연금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문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혁신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퇴직연금도 로보어드바이저에 일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RA 업체들은 발 빠르게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대비 중이다. RA 시장 점유율 선두인 디셈버앤컴퍼니 RA 서비스 파트너는 KB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제휴 관계를 맺었고, 판텍투자일임은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에 이어 신한은행과 퇴직연금 투자일임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고객들

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이 커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 AI의 급속한 성장은 데이터의 외연적 확장과 알고리즘의 발달에 힘입어 이루어졌다”며 “각 요소에 대응하는 근원적 리스크 요인으로 과거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한 예측 오류, 생성된 결과물의 자의적 해석, 과소 추정 또는 거짓 양성반응에 따른 효율성 감소로 정보적 연관성과 결과의 해석 가능성 저하라는 부정적 측면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MBK 김병주 “국내기업 저평가… 평균 25% 할인”

LP 연례서한 ‘투자가치’ 강조
“애포인수합병 시장, 韓·日 주도
중시장 성장통… 정상화될 것”

“국내 기업들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모 시장까지 확산해 있다.”

김병주<사진>MBK파트너스 회장은 1일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LP)에게 보내는 연례서한을 통해 “한국 기업 투자는 글로벌 동종 피어(비교)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25% 할인된 가격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투자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공동투자금을 포함해 36억 달러(약 4조7000억 원)를 투자로 집행했다. 이는 앞서 2021년, 2022년의 투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사모펀드(PE) 투자 회수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MBK파트너스는 4억 달러(5398억 원) 이상 투자금을 회수했다.



바이아웃(Buyout Fund) 펀드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기업 가치는 37억5000만 달러(약 5조587억 원), 스페셜 시투에 이션스(Special Situations) 투자자들의 기업 가치는 미화 2억9500만 달러(약 3979억 원)씩 상승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아시아 인수·합병(M&A) 시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며 “정책적 지원이 저희 MBK파트너스와 같은 현지 운용사들이 시장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했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도 PE 시장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MBK파트너스는 작년 한 해 동안 8개의 대기업 그룹과 9개의 딜을 진행했다.

일본 PE 시장의 활황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흐름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MBK파트너스 설립 때부터 일본 시장에 대해 말씀드렸다. 일본은 전 세계 3위 규모의 경제, 투명한 규제 체계와 신뢰할만한 금융 공시 기준이 존재하며,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인수금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출자’들의 천국”이라고 짚었다.

다만 중국 시장이 곧 다시 부상할 수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많은 GP 운용사들이 중국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중국의 비중을 줄였지만, 중국이 시장을 주도했던 챗터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시장이 대내외적 요인으로 주춤한 것은 맞지만, ‘성장통’의 시기일 뿐”이라며 “중국은 10억 명의 소비자층이라는 너무나 큰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민간 시장은 성장을 다시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해졌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전례가 없는 일을 시도해온 국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희민 기자 hihello@

국민연금 1월 기금운용 수익 ‘기대이하’

연초 증시 부진에 국내주식 -6%

해외주식은 5%대… 평균 1.09%

국민연금이 올해 1월 약 1%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초 증시 부진으로 국내주식이 하락세를 기록한 영향이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은 1.09%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와 해외 수익률이 크게 갈렸다.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수익률은 각각 -5.98%, -0.58%를 기록했지만,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은 각각 5.17%, 2.56%를 기록했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2.55%로 집계됐

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 반영 전으로, 연말에 공정가치를 평가한 수익률이 반영된다.

1월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은 1049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주식 138조 원 △해외주식 339조 원 △국내채권 322조 원 △해외채권 76조 원 △대체투자 170조 원 등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연초 이후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해외주식 운용수익률이 양호했다”면서도 “지난해 말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감소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주식 및 채권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 상승 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KB운용 “2분기 펀드 채권·美성장주·리츠 유망”

KB자산운용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과 금리 인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처를 고민할 투자자들에게 올해 2분기 유망 펀드 5종을 제안했다.

1일 KB자산운용에 따르면 ‘KB 머니마켓 액티브’와 ‘KB 장기 공공채 플러스’는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채권 바벨 전략’에 적합하다. 단기채를 통해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KB 머니마켓 액티브’에 투자하며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장기채 상품 ‘KB 장기 공공채 플러스’를 함께 보유하면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KB운용은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장세의 수혜를 보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KB 미국 대표성장주’와 ‘KB 글로벌 AI 플랫폼’을 추천했다. 엔비디아와 애플, 테슬라 등 우량성장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KB 글로벌 AI 플랫폼’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산업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



을 아우르는 테크 산업에 투자한다. 1년 수익률이 46%를 넘는다.

금리 하락기에 주목한다면 배당상품인 ‘KB 한국리츠인프라’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과 국내 우량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한국리츠의 배당 매력에 부각하며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KB 한국리츠인프라’는 맥쿼리인프라와 국내 우량 상장 리츠에 투자하며 안정성과 배당수익을 극대화한다. 1년 수익률은 9%를 넘는다. 윤혜원 기자 hwyoon@

“1억걸음 걷고 탄소중립” 한투證 ‘위워크’ 캠페인

한국투자증권은 4월 한 달간 탄소중립을 위한 임직원 걸음 기부 캠페인 ‘WE:walk (위워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위워크는 ‘With the Earth! walk Together’를 슬로건으로 내건 캠페인이다. 임직원들이 4월 한 달 동안 걸은 걸음 수를 집계해 1억 걸음을 달성할 경우 숲 조성 후원금을 기부한다. 후원금은 서울중앙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나무심기에 활용된다.

정희민 기자 hihello@



집값 상승 기대감에… 미분양 단지 잇단 ‘완판’ 소식

최근 집값이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최초 분양 당시 대거 미분양 됐던 단지들의 잇단 완판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분양시장이 얼어붙었던 작년 11~12월 사이 분양한 곳들이다. 매매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자 미계약분을 ‘줍줍’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몰리면서 미분양 소진에 속도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1일 분양업체에 따르면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공급한 ‘매교역 팰루시드’는 전날 계약을 100%로 완판됐다.

이 단지는 권선 113-6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총 2178가구(일반분양 123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101㎡ 최고가가 12억 원에 육박해 고분양가란 지적이 나온 곳이다. 지난해 12월 말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 3대 1을 기록하고도 30%의 저조한 계약률

매교 팰루시드·소사 롯데캐슬…

매매시장 얼어붙었던 작년말

분양 단지들 미분양 물량 소진

“지방도 계약 흐름 좋아져…

시장 정상화되나” 건설사 반색

로 대거 미분양 됐다. 미분양 소진을 위해 올 2월 무순위 정당계약부터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조정했고, 한달 여만에 수백 여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전부 팔렸다.

삼성물산 분양 관계자는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일부 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수요자 부담을 낮춘 점이 분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롯데건설이 공급한 부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도 최근 완판됐다. 이 단지는 올 2월부터 선착순 동호자

올해 선착순 계약을 거쳐 완판된 단지 ※ 출처: 각 사, 분양업체			
시공사	단지명	분양	계약 마감
삼성물산 컨소시엄	매교역 팰루시드	2023년 12월	2024년 3월
롯데건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2023년 12월	2024년 3월
대우건설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2023년 11월	2024년 3월

완판이 임박한 단지			
시공사	단지명	분양	계약률
GS건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2023년 12월	약 85%

정 계약을 진행해 한달 여 만에 전 가구가 집주인을 찾았다. 또 대우건설이 지난해 11월 부산 남구 문현동 일원에 내놓은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도 선착순 계약 2개월 만인 지난달 계약을 100%를 달성했다.

계약 마감 초읽기에 돌입한 단지들도 다수다. GS건설이 같은 시기 수원 영통구 일원에 분양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도 계약을 85%로 완판이 임박했다. 일반

분양 472가구 중 전용 84㎡와 대형 일부 물량을 제외한 모든 타입이 주인을 찾았다. 이밖에 현대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도 계약 속도가 붙어 순항 중이다.

미분양은 건설업체는 물론 정책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 등도 골칫거리다. 미분양은 자금흐름을 막고 정부의 정책효과도 떨어트리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

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보다 1.8%(1119가구) 늘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음에도 5만2918가구로 여전히 전체 미분양 주택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미분양 소진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여러모로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말 미분양됐던 물량들이 빠르게 팔리고 있다. 지방에서도 입주 물량이 지나치게 많은 지역을 제외하곤 계약 흐름이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3월 미분양 물량은 2월보다 나아진 분위기다. 대단지, 브랜드 단지들은 팔리고 있다”며 “다만 지방 외곽 중소아파트들은 회복하려면 금리 인하, 양도세 완화 등 정책 기조 변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새 먹거리 찾아 ‘해외·비주택 수주’ 눈 돌리는 건설사

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비주택·해외 수주 실적 쌓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요진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0-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연면적 2만9226㎡,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대봉엘에스 송도 R&D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요진건설의 올해 마수결이 수주다.

대봉엘에스 그룹의 글로벌 R&D 센터와 신사옥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신소재와 제품 연구개발, 생산까지 전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총 공사금액은 약 564억 원이며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착공했다.

요진건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부산 강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

요진건설, 대봉엘에스 R&D센터 KCC, 軍 탄약고 교체 시설공사
쌍용은 아이티 태양광 사업 수주
“주택시장 불안정에 당분간 지속”

사도 따냈다. 신강서-세산 1차 구역의 수직구를 건립하는 공사로 총 공사금액은 88억 원이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말 파마리서치바이오 강릉 제2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이번에도 GMP 시설을 수주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민간은 물론 공공공사 수주에 박차를 가해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CC건설은 지난달 국군재정관

리단이 발주한 ‘23-U-탄약고 교체 시설공사’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1431억 원이며 KCC건설이 100% 지분으로 단독 수주했다. KCC건설은 올해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602 생활권 조성공사’도 수주한 바 있다. 사업비는 총 1418억 원이다.

KCC건설은 주택사업 불황 속에서 사업 안정성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왔고 그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KCC건설은 앞으로도 포트폴리오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쌍용건설도 해외·비주택 부문에서의 수주 소식을 잇달아 전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올해 1월 아이티 태양광 사업을

수주하면서 중남미에 진출했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4공구 건설공사’도 따냈다. 아이티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을 구축하고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총 사업 규모는 약 750억 원이다. 광주도시철도 사업은 총 공사비 1323억 원 규모로 쌍용건설이 51% 지분(675억 원)으로 참여한다.

지난달에는 두바이 고급 레지던스 2건을 동시에 수주했다. 총 3000억원 규모다. 두바이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인 크릭하버 지역에 들어설 최고급 레지던스 ‘크릭 워터스 1·2’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동부건설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신축공사와 이차전지 생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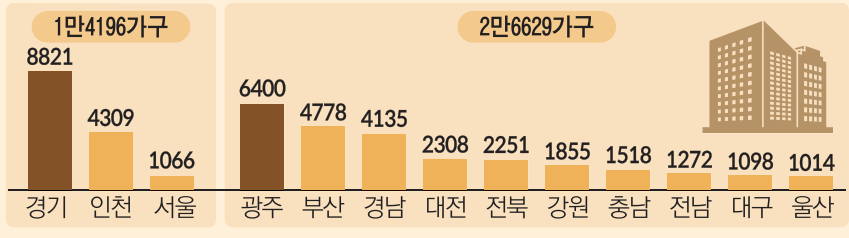


요진건설이 수주한 ‘대봉엘에스 송도 R&D센터’ 조감도. 사진제공 요진건설산업

공사 등을 포함해 올해 비주택 부문에서만 약 3400억 원의 수주 실적을 쌓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주택사업 수익성도 좋지 않아 공공공사와 신사업, 해외시장에서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계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4월 지역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 출처: 지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단지·사전청약 제외,
3월 28일 조사 기준으로 공급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달 4만825가구 분양…작년의 2배 이상

수도권만 1만4000여 가구

올 4월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가 지난해 4월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만 1만 가구 이상 분양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춘천 영향으로 실제 공급량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4월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4만825가구에 달한다. 전년 동월(1만5192가구)보다 무려 169% 많은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4196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 8821가구, 인천 4309가구, 서울 1066가구 순이다. 서울은 강동

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가구, 영등포구 1-13구역을 재개발한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659가구가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2,3BL)에서 3053가구의 대단지 분양이 눈길을 끈다. 지방에는 2만6629가구가 공급된다.

다만 이 같은 분양 계획은 실제 공급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월 10일 총선이 예정돼 있어 홍보 효과를 고려해 실제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청약제도 개편이 있었던 3월에도 분양 예정 물량과 실제 공급량이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는 기자 hje@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환경시설관리

renewus ‘리뉴어스’로 사명 변경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환경시설관리(EMC)가 ‘리뉴어스(renewus)’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기업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운 사명인 리뉴어스는 환경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의미하는 ‘리뉴(Re-New)’와 ‘우리’와 ‘지구’의 중의적 의미를 담은 ‘어스(Us, Earth)’의 합성어다. 환경분야 혁신기술을 통해 폐기물을 에너지와 자원으로 바꿔 지구에 새로운 가치

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리뉴어스는 사명변경과 함께 올해 미래 방향성도 제시했다.

우선 산하 환경자회사에 통합 환경 브랜드 ‘리(re)’를 적용하고 통합경영체제를 본격 실행한다. 사업 구조 고도화에도 나선다.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 물 공급사업 등 고부가가치 환경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소각사업 중 발생하는 폐열, 증기를 활용하는 폐에너지사업 비중을 대폭 끌어올려 매출 구조

를 개선할 계획이다.

모회사인 SK에코플랜트와의 시너지도 도모한다. 양사는 AI(인공지능) 소각로, 스마트하수처리 시스템, 폐기물 물류 플랫폼 ‘웨이브’ 등 환경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해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지훈 리뉴어스 대표이사는 “물 공급사업의 확장, 에너지사업 비중의 극대화를 통한 국내 환경산업에 영향력 강화와 더불어, 순환경제를 선도해 리뉴어스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하겠다”며, “앞으로 ‘We Renew the Earth’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산업의 미래가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BS산업 대표에 김만겸 前 한화건설 부사장

보성그룹 개발사업 담당 계열사 BS산업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만겸<사진> 전 한화건설 개발사업본부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BS산업은 주택 및 부동산 개발 중심의 디벨로퍼에서 친환경 미래도시 솔라시도, 새만금 신시야미,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 미래도시개발 및 스마

트시티 분야 기업으로 탈바꿈 중이다.

김만겸 사장은 한화건설 입사 후 도시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을 시작으로 개발사업실장을 거쳐 개발사업본부장을 역임한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다.

BS산업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춰 BS산업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친환경 미래도시 솔라시도,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새만금 신시야미, 청라 국제금융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모형 복합개발사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첫발 댄 서울시 건물 탈탄소... ‘히트펌프’에 답 있다

서울시가 건물 탄소중립을 위해 의미 있는 첫발을 뒀다. 이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등급제를 도입했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다음 고민은 건물 탄소배출 주변인 난방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전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중심에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히트펌프’가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건물 탄소중립 계획에는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달성 방안이 부족하다. 단열기준 강화로 에너지효율을 높여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 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

에너지 신고·등급제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달성 방안 부족해 고민
美·유럽 중심 ‘히트펌프’ 인기몰이
에너지전환을 높고 탄소배출 줄여
韓, 지원대상 미포함 등 문제 산적

고 보고 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노후 건물은 단열 성능이 떨어져 난방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며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난방연료의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2010년(건축물 단열 기준 강화) 이전 건축된 건축물 비중은 74%에 달한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도

12%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 에너지 사용의 58%를 차지하는 건 바로 난방. 그리고 건물 탈탄소를 위한 난방연료로 ‘히트펌프’가 뜨고 있다. 히트펌프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실내·외 공기 온도를 조절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연소작용이 아니라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탄소열원이라 불린다. 에너지 전환율은 LNG를 연료로 하는 일반 보일러가 83%인 반면 히트펌프는 300%로 월등히 앞선다. 열 1MWh 생산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일반보일러 대비 최대 68%까지 줄일 수 있다.

건물 탈탄소 고삐를 죄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히트펌프는 인기몰이 중이다. 유럽연합은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에 따라 2040년까지 화석연료

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금지된다. 독일은 올 1월부터 가스 및 석유 보일러의 신규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고,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용 지원에 나섰다. 정부의 지원사격으로 2022년 유럽 내 히트펌프 판매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300만 대를 기록했다. 2030년까지 4500만 개의 가정용 히트펌프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유럽 전체 가정의 60%가 히트펌프를 사용할 것이라 추산이다.

미국 연방정부도 2045년 연방건물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공간 일부를 100% 전기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정부부는 ‘히트펌프에 관한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 가정의 히트펌프 보급 대수를 470만 대에서 2000만 대로 4배 늘리는데 합의했다. 2022년 히트펌프는

430만 대 이상 판매돼 천연가스(390만 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권 소장은 “히트펌프 열원에 따라 지열, 수열, 공기열로 나뉘는데 설치장소에 제한이 없고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기열이 최근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기열 히트펌프가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산에 한계가 있다. 전기요금 누진세도 히트펌프 사용을 꺼리게 만든다. 브라이언 마더웨이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효율부문 책임자는 지난해 본지와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억 개의 공기열원식 히트펌프가 설치돼야 넷제로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이 붙은 문안으로 교체돼 볼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당선자 최정우 씨의 ‘새싹을 밟을까봐, 아이는 강충강충 걸었다’를 붙였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마포구, DMC역에 대장~홍대선 추진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본격화
“교통 요충지로 자리매김 기대”

서울 마포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E노선 신설이 확정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 대장~홍대선도 추진에 들어갔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마포구는 ‘대장~홍대선 DMC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구는 용역 결과물 토대로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에 DMC역 신설을 위한 조사 결과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DMC역은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에 이어 GTX-E 노선까지 더해지며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게 됐다. 현재 DMC역 인근 상암 1, 2지구에는 1만13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상암과 인접한 덕은, 향동, 수색·중산, 입주 예정인 창릉지구까지 합치면 7만여 세대가 거주하게 된다. 또한 상암동 DMC 랜드마크와 롯데몰,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서울 트윈아이’ 등이 연이어 추진될 계획이다.

구는 이같은 역점사업으로 DMC 인근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신

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연결해 부천시, 고양시, 서울 강서구·강서구·마포구를 지나는 노선이다. 지난 2022년 민자철도 사업 추진이 확정된 대장~홍대선은 지난해 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민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현대건설이 제안한 노선도에는 비용 문제에 따라 DMC역이 제외됐고, 해당 노선은 기획재정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해당 철도는 내년 착공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 부담 주제다. 국토교통부는 DMC역 신설에 따른 비용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결정된 사항 외 추가 비용 투입이 어려우며, 원인자비용부담으로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대장~홍대 광역철도 DMC역 신설에 대해 찬성하지만, 원인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마포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DMC역 신설로 인근 주민들에게 철도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 신설 관련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유치원 학부모 추가 부담 월평균 17만원

유치원 학부모들이 정부 지원금 외에도 유치원에 월평균 17만원 가량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

유아교육 실태조사는 정부가 2021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2017년 시범조사 이후 2022년 실시된 첫 본 조사다. 전국 2041개 유치원과 교사 2000명·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치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의 근무여건, 이용 실태 등에 대해 다뤘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유치원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금 외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부모가 유치원에 별도로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

은 총 17만2000원이었다. 공립유치원은 5만2000원, 사립유치원은 22만4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비 추가 지출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80.5%가 ‘그렇다’고 답했고, 지출할 의향이 있는 평균 비용은 14만6000원이었다.

자녀가 취원한 연령은 평균 3.6세였

교육부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
지원금 외 특성화비 별도로 지출
80% “양질교육위해 더 낼 수 있다”

고, 유치원에 다니기 전에는 어린이집(87.2%)을 다닌 경우가 대다수였다. 유치원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이의 전인발달을 위해’(52.7%)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준비교육을 위해’(21.6%)가 뒤를 이었다.

부모의 유치원 이용 비용 부담 정도를 5점 척도(5점: 매우 부담됨, 1점: 전혀 부담되지 않음)로 분석한 결과 평균

2.30점으로 나타났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고, ‘적당함’이 33.0%였다.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다고 답한 학부모는 85.3%였다. 그 이유로는 외벌이가구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맞벌이가구는 ‘가정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37.6%로 가장 높았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방과후 과정 확대’(21.3%), ‘교육내용 다양화’(19.1%), ‘노후시설 정비’(18.8%)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고, ‘교육비 인하’는 8.2%로 비교적 적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는 2021년 기준으로 기본급 196만원과 평균 수당 87만5000원 등 총 283만5000원이었다. 하루 총 근무시간은 평균 9시간 18분이었는데 공립은 8시간 59분, 사립은 9시간 27분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

손현경 기자 son89@

“순천시, 특색있는 도시로 성장 지원”

유인촌 장관, 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양성이란 문화가 지녀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순천시를 비롯한 지자체 13곳 모두 지역의 고유문화를 살려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특색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1일 유장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전라남도 순천시를 방문해 순천만 국가정원 개막식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 순천시는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 순천’이라는 표어를 내걸며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애니메이션 관련 공간을 만들었다.

△인기 웹툰 작품인 ‘유미의 세포들’ 속 세포 캐릭터를 활용한 미로 △애니메이션 ‘레드슈즈’ 속 캐릭터인 우드베어를 활용한 4차원 놀이기구 △산림청 숲으로가자 홍보대사인 ‘두다다쿵’을 활용한 정원 탐험 콘텐츠 등이 대표적이다.

유장관은 이날 순천만 국가정원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정원문화산업 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시민 캐릭터 코스튬 행진 등을 관람했다. 송석주 기자 ssp@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축구도 하나 은행도 하나 카드도 하나



하나
뿐인
내편

“산업계 거목이 가셨다”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 사흘째 추모 행렬

최태원 “기술경영 선각자” 이웅렬 “한국 섬유계의 별이었던 분”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
민간 외교 큰 활약...美·이스라엘 등 주한 대사들도 직접 조문

지난달 29일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사흘째인 1일에도 정·재계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빈소를 방문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조 명예회장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산업계의 큰 별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흘에 걸쳐 각 그룹의 총수들부터 3·4세 경영인까지 국내 주요 기업 경영인과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져 조 명예회장이 국내 경제계에 남긴 큰 족적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날 오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제가 외교부 장관이었던 시절 고인은 한미경제회의의 위원장을 맡았다”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

특히 한미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소회했다.

이재현 회장은 “선대부터 가족끼리 잘 알고 지냈다”며 “고인은 국가 경제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산업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웅렬 명예회장은 “(고인은) 저희의 대선배이자 우리 섬유계의 별이었던 분”이라고 했다.

최태원 회장은 “고인은 우리 대한민국 기술 경영자로서의 선각자였다. 민간 외교도 잘해 주셨다”며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해야 할 시기에 조 회장님과 같은 훌륭한 리더를 잃은 것은 경제계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 고인은 일찌감치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설립자(Founder)이신 분”이라며 “세대가 바뀌는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있어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다”고 밝혔다.

오후에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김영식 국민의미래 국회의원, 박지원 두산에너지리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1일에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최태원(왼쪽부터)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티 회장,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윤세영 회장은 “개인적으로 친함에도 불구하고 외병 기간이 길어 교류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산업계의 큰별, 거목이 가셨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고인께선) 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전경련에서 최초로 이끌어내신 분으로 중소기업에 애정이 많으셨다”고 회고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고인과 생전 학교 선후배 관계였다”면서 “좀 더 오래 사시면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

는 분인데, 훌륭한 분이 너무 일찍 가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은 생전 민간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일관계 개선 등 경제 외교에 힘써온 만큼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대사, 자크 폴리스 룩셈부르크 대사 등 각국 대사들도 조문했다.

193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조 명예회장은 고(故) 조흥재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다. 일본 와세다대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원에서 화공학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애초 대학교수를 꿈꿨으나 1966년 박사 과정

을 준비하던 중 부친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귀국, 효성물산에 입사하며 기업인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동양나일론 울산공장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향후 효성그룹 성장의 기틀이 됐다는 평가다. 1973년 동양폴리에스터를 설립하면서 화학섬유사업 기반을 다졌고, 1975년 한영공업(현 효성중공업)을 인수해 중화학공업에도 진출했다. 1982년 효성중공업 회장직을 물려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섰다. 조 명예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경영 혁신과 주력 사업 부문의 글로벌화를 이끌며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김해욱 기자 haewookk@·이동욱 기자 toto@

브라이언임팩트, 박승기 이사장

재단법인브라이언임팩트는 신임 이사장으로 박승기(사진) 전 카카오브레인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신임 이사장은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한다. 임유진 기자 newjean@



KGC인삼공사, 안빈 대표 선임

KGC인삼공사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안빈(사진) KGC인삼공사 글로벌본부장을 대표이사(사장)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안 대표이사는 2000년 KGC인삼공사에 입사해 화장품사업실장, ㈜코스모코스 대표이사, KGC인삼공사 글로벌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신세계프라퍼티, 서철수 대표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는 서철수(사진) 전 NH농협리츠운용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고 리츠 사업 진출 본격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 대표는 2018년 NH농협리츠운용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 이후, NH프라임리츠와 NH원리츠를 상장시키고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한 인물로 국내 대체투자 및 리츠 분야에 있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문현호 기자 m2h@



노동진 회장 “어업인·회원조합 모두 부자 되는 세상 실현”

수협 창립 62주년 기념식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일 송파구 수협 본부에서 열린 창립 62주년 기념사에서 “기준과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어업인과 회원조합 모두 부자 되는 세상을 앞당겨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전국 수협 조합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협은 이날 △회원조합 지원자금 3000억 원대로 확대 △중앙회·회원조합·자회사 협업을 위한 범 수협 통합 수산식품 연구개발(R&D) 센터 구축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전용상품 개발 등을 담은 지속 성장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노동진(가운데) 수협중앙회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수협중앙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배우 박상원(왼쪽) 씨와 표예진 씨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발표했다.

기념식에서는 수협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배우 박상원 씨와 표예진 씨가 공로패를 받았다. 지난해 ‘진심을 담아, 이름에

담아’라는 주제로 제작된 공익캠페인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서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수협 대상에는 전국 최대 물길 생산 조합인 고흥군수협을 이끌며, 지난해 김 수출 1조 원 시대를 견인한 이홍재 조합장이 수상했다. 금융권 최초로 은행과 상호금융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형태의 복합점포 개설 업무를 전담한 수협중앙회 최호준 팀장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릉시수협 홍성일 과장은 어장 정화사업을 주도하고 2300여 건(70억 원)의 수협공제 판매 실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수협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창립유공(정부포상) 10명 △결산유공조합(중앙회장) 5곳 △협동운동우수조합(중앙회장) 4곳 △출자증대우수조합(중앙회장) 5곳 등 수협과 수산업 발전에 힘쓴 유공자와 회원조합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장경근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권수진 ◇고위공무원단 전보 △체육협력관 송윤석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장 이정미 ◇과장급 전보 △디지털소통정책과장 이영호 △저작권 정책과장 정태경 △관광산업정책과장 강동진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장 양성혁 △보존과학부장 천주현
◆한국관광공사 ◇전보 △재경팀장 이창의 △타이베이지사장 호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직 임용 △연구기획조정실 예산기획팀장 양주형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장 임정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로연구소장 조진영
◆신한라이프 ◇승진 ◇부사장 △운용지원팀 팀장 박정우 △투자관리팀 팀장 최보형 ◇전보 ◇부사장 △글로벌사업팀 팀장 최수성
◆메트라이프생명 ◇승진 ◇전무 △Operations 담당 김수연 △Compliance 담당 김지은 △CPC 담당 조기상 △상무 △GA채널 담당 최용택 ◇선임 ◇이사 △IT개발 담당 이광희

◆ABL생명 ◇보직 변경 △B2B실장 서정혁 ◇승진 △상품실장 김순재
◆우리금융캐피탈 ◇승진 ◇전무 △리스크관리 본부 이기홍 △기업금융본부 장창엽 △IB투자금융 본부 김준경 ◇신규 ◇상무 △경영지원본부 주현중
◆대신파이낸셜그룹 △대신증권 ◇임원(전무) 신규 선임 △IB부문 부부문장 이현규 ◇이사대우(부장) 신규 선임 △영업부 이은석 ◇부서장 신규 선임 △법인금융상품본부 조태원 △대신에이엠씨 ◇임원(상무) 신규 선임 △자산관리본부 김상민
◆BNK투자증권 ◇전무 △IB금융본부 김미정
◆한화투자증권 ◇팀장 선임 △인재관리팀 정재영 △커뮤니케이션팀 박경대
◆신영증권 ◇승진 ◇부사장 △WM·자산배분 총괄 김대일 ◇전무 △리서치센터 김학균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오영표 △자산배분솔루션본부·Operation본부 천신영 ◇상무 △Structured Products본부 송방준 △위험관리책임자 이동규 △Intelligence전략실·법무팀 정재은
◆한양증권 ◇승진 ◇상무 △기업금융센터장 유문성 △채권금융부 조일연 △채권금융부장 정성민 △특수IB1부 김한준 △채권시장1부장 이동열 ◇이사 △CM본부 정수진 △인천프리미어센터 최광주

△종합금융부장 박동희 △파생금융부 강운순 △투자금융부장 이상원 ◇부장 △시너지금융부 김일구 △부동산대체투자부장 김정욱 △FICC Sales센터 오수민 △주식파생1부 김영근
◆KR투자증권 ◇전무 △감사실장 김오훈 ◇상무 △채권본부 강승구
◆리딩투자증권 △보직 임명 ◇부부장 △투자금융부문장 홍한선 ◇본부장 △투자금융본부장 윤승용 △복합금융본부장 이종성 △FI금융본부장 이재홍 △CM본부장 이수영 △전략투자본부장 김종만 ◇실장 △투자금융실장 함동훈 △감사실장 정경순 ◇팀장 △멀티금융팀장 김부겸 △FI트레이딩팀장 황기석 △전략투자팀장 류승남 △회계팀장 이운재 △자금팀장 이병혁 △IT개발팀장 강현우 ◇승진 ◇전무 △SF본부장 이정근 ◇상무 △FI금융본부장 이재홍 △CM본부장 이수영 △투자금융실장 함동훈 ◇이사 △FI트레이딩팀장 김재환 △FI세일즈팀장 송영훈 △CM세일즈팀장 고성수 ◇부장 △자산관리팀장 윤인환 △전략금융팀 어윤준 △에쿼티솔루션팀 강정욱
◆리딩자산운용 ◇승진 ◇상무 △투자금융팀장 현준섭 ◇부장 △투자금융팀 이준민
◆이스트프링자산운용 ◇승진 ◇전무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본부 이창일 ◇상무 △법인

영업본부 임석환 ◇이사 △채권운용본부 채권운용 1팀 변준
◆일동제약그룹 △일동홀딩스 ◇부장 승진 △김효섭 △이보라 △이성형 △일동제약 ◇부장 승진 △김동섭 △김민주 △김승호 △김영권 △김영민 △김영민 △김유진 △박기철 △여기향 △오유진 △윤여성 △이종성 △장민욱 △최성우 △최원석 △일동 바이오사이언스 ◇부장 승진 △이정운 △유니기획 ◇국장 승진 △윤운오 ◇부장 승진 △이태제
◆동국제약 ◇부사장 △ETC사업본부 강종한 ◇전무이사보 △R&D본부 박신정 △신제품개발실 유기웅 △개발기획실 이희자 △재무기획실 김홍기 △헬스케어비티사업부문 함명진 ◇이사대우 △ETC사업부문 안우진 △ETC사업부문 이상조 △헬스케어온라인사업부문 김중훈 △품질경영실 김민우
◆팬스타그룹 ◇이사대우 승진 △여객사업본부 전세크루즈팀 유다중 ◇부장 승진 △페리화물사업본부 영업팀 조수형 △남부물류사업본부 업무팀(부산) 정재경 △남부물류사업본부 장비안전관리팀 김현
◆한국애비비 ◇이사 △서성덕 △박찬일 △김욱진
◆유한화학 △대표이사 사장 이영래

부음

▲강형모 씨 별세, 박정호 씨 남편상, 강유진·현진 씨 부친상, 서호석(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재무회계팀장)·윤석찬 씨 장인상, 서재만·준호 씨 조부상 = 3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02-2258-5940
▲하완숙 씨 별세, 김중현(전 대우증권 이사) 씨 부인상, 김성혜(한양대의대 교수)·태연(코오롱모빌리티그룹 재무IR팀장) 씨 모친상 =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02-3010-2000
▲유현숙 씨 별세, 강형윤(제주 강형윤가정의학과 원장)·진상·형찬(바엔아이시스템 대표)·형택(한국도로공사 선임연구위원) 씨 모친상, 고영일(전 우리회계법인 대표) 씨 장모상, 고유경·정은주·김민정(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씨 시모상 = 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2-3410-3151

조동근 칼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進運)을 결정하는 체제전쟁에 다르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모두 피고인 신분임에도 '무죄추정원칙'에 기대어 총선에 출마했다.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약자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무죄추정원칙'을 역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 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면, 비록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다른 방탄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국은 금지선을 넘고 있다. 공식선거 유인물에 '회칼 테러로 국민·언론 겁박' '윤석열 검찰독재, 3년 당겨 끝낼 가장 확실한 선택'을 적고 있다. 국민이 선출해서 재임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실각시키는 정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조국이 영입했다는 '인재' 정상진 회장은 2022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상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발권을 통한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관객 수 조작

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또 다른 여론조작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과 본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울산시장 관권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는 조국당의 비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3중 4중의 사법리스크를 머리에 이고 정치를 하고 있다. 그의 위성정당은 '통진당에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

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세력 난무

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야

뿌리 둔 이념세력의 국회 진출 계획'에 비견된다.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이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연합의 목표 의식인 20만까 지 중, 민주당 추천 몫 10명을 제외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4명, 진보당 추천 3명, 새진보연합 추천 3명'의 역할은 '정권타도'일 것이다. 비례대표제의 '제도익(制度益)'은 이미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최종 명단에는 진보당이 추천했

던 '장진숙' 전 진보당 공동대표가 빠졌다. 그녀는 '주한미군 철수, 반미자주화 투쟁' 등의 문건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고, 수령님과 장군님, 령도자 등 단어가 등장하는 이적표현물 파일을 다수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녀는 물러났지만 그녀의 멘토라 할 수 있는,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소고기 반대, 사드배치 철회'를 외친 민주개혁진보연합 공동의장 조성우, 박석운 등 뿌리와 몸통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재명의 '한국의 아르헨티나행'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평소 '기본 시리즈'를 줄기차게 주장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한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그가 '아르헨티나'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기적 대청소에 비견된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별해야 한다. '정보의 제한, 인공지능의 제약'으로 최선의 대안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최악의 대안을 골라 버리는 것은 쉽다. 현실의 정치는 끝까지 살아남은 대안, 즉 '공코드 승자(勝者)'가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정치발전은 유권자의 몫이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가 깨어있어야 한다. 4월 총선은 '악과 위선'의 세력을 구분해 버리는 유권자 혁명, '정전(淸戰)'에 다르다.

곳간 비어가는 대기업, 투자는 활발

대기업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지만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고 LG디스플레이가 1조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니 경기침체 시기가 그런지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사실 태영건설 자체적으로는 재무구조가 나쁜 편이 아니다. 연결기준으로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307억 원이고 각종 금융자산도 4086억 원 이나 된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련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추정액 6021억 원과 PF 지급보증 관련 손실추정액 6352억 원이 모두 2023년의 손실과 부채로 잡히면서 1조50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자본잠식에 빠졌다.

삼성·SK·LG 등 재무구조 악화돼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현재 총 PF대출 잔액은 4조4533억 원이고 채무보증 건수는 106건 이라 2024년에 추가 손실이나 부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는 다른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LG디스플레이는 연결기준으로 2023년에 매출액이 21조 원에 그쳤고 영업적자는 2조5000억 원 이나 됐다. 2022년 대비 매출액은 18% 넘게 감소했고 영업적자도 20%나 늘었다. 부족한 자금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했는데 조달금리가 7.2%대여서 이자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2023년에 1조7000억 원대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했지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비가 4조 원이 넘기 때문에 현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2023년 말 현재 보유한 예금이 3조2000억 원 정도인데 갚아야 하는 대출 잔액이 16조 원이 넘는 정도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결국, LG디스플레이는 3월에 1조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고대 역폭 메모리(HBM)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사실 이들 기업 역시 곳간이 많이 비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었던 삼성전자는 2023년에 종속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에 약 22조 원을 빌릴 정도였다.

삼성전자의 2023년도 별도 현금흐름표를 보면

시론

박 동 흠
회계사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흐름이 34조 원이나 되지만 유·무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이 47조 원이 넘고 주주들한테 약속한 정규배당금 9조8000억 원을 지급하느라 23조 원의 돈이 모자랄 정도였다. 결국, 보유한 예·적금도 꺼고 대출도 받아서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만 해도 삼성전자가 단기금융상품을 29조 원이나 갖고 있었는데 2021년에는 15조 원, 2022년에는 불과 1억3000만 원만 남을 정도로 돈이 급속히 말라갔다. 이 3년 동안 133조 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했지만 유·무형자산에 110조 원이 투자되었고 주주들에게 약 40조 원의 배당금을 풀었기 때문에 보유한 금융상품이 급속히 줄은 것이다. 2023년의 현금흐름도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 보유한 금융상품이 말라서 삼성전자는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돈보다 더 많은 미래투자 그나마 '위안'

SK하이닉스는 2023년에 적자를 내고 말았지만, 별도기준으로 3조 원이 넘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했다. 그러나 유·무형자산에 7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80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역시 자금 부족을 겪었다. 최근 3년 누적 기준으로 34조 원의 돈을 벌었지만 유·무형자산에 34조 원의 투자가 들어가고 3조 원이 넘는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역시 보유한 순현금이 많이 감소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 예금 등이 3조5000억 원이지만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 25조 원이 넘는다.

이들 기업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두 글로벌 업황이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적 개선 여부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올해도 예년 수준의 실적을 낸다면 재무구조는 더 악화될 것이다. 다행히 2023년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낸다면 정말 대기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50만원 대출' 이후의 과제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 지 1년이 지났다. 하루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 출이다.

사실상 내년까지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을 지속적으로 내주려면 은행권 기부금에 더해 지난해 대출을 받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갚아 회수해야 하는데, 돌아올 돈이 많지 않아보여서다. 신용불량자나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었던 만큼 연체율이 높고 대출 상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럼에도 당국 내부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잘 마무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대출지원과 함께 복합상담을 하면서 취약계층의 속사정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했고, 이때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과 복지제도, 취업 지원 안내 등을 제공했다.

이제 금융당국은 그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만 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 상환 안내와 함께 복지·고용제도를 한 번 더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질병이나 사고 등 연체를 할 수밖에

노트북 너머

유 하 영
금융부 기자

없는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 다. 처음 대출을 내줄 때 했던 상담의 사후관리를 하는 셈이다.

앞으로의 서민금융 정책도 '지할 지원'에 초점을 둔다. 금융위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2일부터 시범사업에 나섰다. 서울 중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안내문을 보내고 센터를 찾은 청년을 상담해 제도 신청을 도왔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6월 전까지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 구축, 운영도 앞두고 있다. 첫걸음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인력,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플랫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haha@

이투데이, 말투데이

☆ 막스 에른스트 명언

"잠수부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엇을 가져올 지 알 수 없다." 독일 본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화가·조각가다. 초현실주의의 대표 화가인 그는 나무, 돌의 표면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비비는 프로타주의 방법을 사용해 괴기한 세계를 묘사했다. 특히 황폐한 도시 혹은 산호초 같은 이상한 풍경 등을 다루는 방법으로 새로운 환상회화의 영역을 개척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로 귀화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91~1976.

☆ 고사성어 / 근위무가지보(勤爲無價之寶)

'근면함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이다'라는 말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더 없는 귀중한 것이

될 것'이요.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이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라[勤爲無價之寶 慎是護身之符].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근면(勤)이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근면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재능은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산(荅山) 정약용(丁若鏞)도 한문의 명문장 중에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문장으로 강태공(姜太公)의 이 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출전 명심보감(明心鑑錄) 정기편(正己篇).

☆ 시사상식 / 임팩트 유니콘(impact unicorn)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 경제조직을 뜻하는 말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푸바오가 남기고 간 것들

푸바오가 떠난다. 판다 한 마리 떠나는 것에 뭐 그리 유난이나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역사상 동물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적도 있었던가 싶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푸바오가 특별한 판다이긴 하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는 출생 자체가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판다를 외교에 적극 활용하는 중국은 2016년 푸바오의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를 한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같은해 사드(THAAD) 사태가 터지면서 한중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2020년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냉랭한 관계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푸바오가 태어났고, 푸바오는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호적인 중국 관련 콘텐츠가 됐다. 푸바오가 불러일으킨 경제적 효과도 엄청났다. 에버랜드와 판다월드 입장객부터 굿즈 판매량까지 크게 늘었으며, 유튜브와 SNS 게시물에서는 푸바오 이름만 걸쳐도 조회수가 폭발했다.

무엇보다 푸바오는 귀엽고 사랑스럽다. 판다 중에서도 ‘미형’이라는 푸바오는 특유

의 해맑은 표정과 귀여운 몸짓으로 ‘푸공주’ ‘푸뽀뽀’ ‘푸린세스’ ‘푸룽지’ ‘푸파렐라’라는 수많은 별명을 탄생시키며 삶에 지친 국민에게 위로 를 안겨줬다. 이런 푸바오가 떠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는 길에 흑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어 그야말로 ‘지극정성’이다. 공항까지 가는 길에는 무진동 특수 수송차량이 동원되며 중국 측이 제공한 전세기로 이동한다. 푸바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까지 동행한다.

푸바오가 받는 사랑이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하다. 얼마 전 전해진 한 동물원 소식 때문이다. ‘갈비 사자’ 논란으로 알려졌다 김해의 이 동물원은 지난해 영업을 중단했는데 이 폐업 동물원에 동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심장이 좋지 않다는 백호와 정형행동을 보이는 사막여우, 온몸에 털이 빠진 타조 등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동물은 모두 13마리로 이들은 제대로

데스크 서약

문 선영
디지털뉴스부장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이다. 이 동물들 역시 한때는 푸바오처럼 사랑받는 존재였으나, 인간에게 쓰임이 다한 지금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사실 푸바오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가능한 발상일 뿐이다. 푸바오 역시 종 보호라는 미명 아래 좁은 내실과 한정된 방사장을 오가며 그들의 본능을 제한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인간의 취향에 맞다는 이유로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푸바오와 나이들고 병들었다고 폐기물 취급받는 폐업 동물원의 동물들을 대하는 인간의 근본적 태도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고 계층화하는 것 말이다. 이는 용어로도 설명된다.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라이더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종차별(speciesism)’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인간이 인간을 피부색 같이 다르다고 ‘인종차별’을 하고 성(sex)이 다르다고 ‘성차별’을 하는 것처럼 동물을 종(species)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간의 이기심이 종차별의 개념을 확대(?)해 동물과 동물을 차별하는 종내 차별 혹은 종간 차별에 이르렀다. 참으로 잔인한 일이다.

푸바오는 떠나지만 여전히 수많은 동물들이 쓰임이 다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돌봄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푸바오 역시 우리에서 또 다른 우리로 옮겨갈 뿐이란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moon@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근로자를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그 리스트의 최상단에 위치한다.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조차 어려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모호한 규제이니 국내외 기업들이 하나같이 거부감을 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불합리한 대목이 수도룩하다. 중복 규제가 대표적이다. 중대재해 사고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대재해법을 추가한 것은 옥상옥 발상의 전형이다. 물론 차이점은 있다. 산안법은 7년 이하의 징

역형에 처하지만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한다. 산안법은 주로 현장 책임자와 법인이 처벌받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현장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처벌만 더 무거워진 셈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사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안전 관리는 초강력 법규만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돈과 시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21만 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기술지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규모일수록 어려움이 커진다.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0%가 넘는 곳이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

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이 매듭지어져야 하지만 현실 여건상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 평균 처리 기간은 2년 반 정도 소요된다. 중대재해법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체감할 수 있다. 헌재가 중소기업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애만 태우다 끝날 수도 있다.

입법적 해결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4월 총선과 더불어 즉각 21대 국회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규제 입법의 폐해를 덜 기회가 없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의 호소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그렇게 하면 당리당락이 아니라 국민민복 관점에서 민생을 돌볼 수 있다. 유종지미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과 과학으로 엮어낸 우주탐험

일론 머스크가 발사한 우주선 스타십이 대기권을 성공적으로 벗어났지만 대기권에 복귀하면서 불타 사라졌다. 재사용을 못했으니 3차 발사는 실패한 발사이지만 1차, 2차 시도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진척이다. 스타십은 재활용할 수 있는 우주선이다. 스타십은 지구 궤도를 벗어나기 위해 1단 로켓의 힘을 빌리지만 상공에서 분리되어 자체 엔진으로 운항할 수 있다. 달과 화성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스타십은 제작되었다.

우주이동 위한 에너지 개발이 관건

스타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사용될 우주선이다. 아르테미스는 미국이 주축이 되고 3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프로젝트로 2026년 유인 달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착륙선도 만든다. 단발성 탐사가 아니라 수시로 달에 오는 사업이다.

참여국인 우리나라도 달 탐사 위성 다누리를 달까지 보내면서 이동 경로에 대한 자문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게서 받았다. 최근에 무인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킨 일본도 참여국이다. 인도는 물과 헬륨이 있고 일교차가 크지 않은 달 남극에 찬드라얀 3호를 착륙시켰다. 새로운 냉전 시대에 돌입한 중국과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우주기술을 선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다누리를 달에 보냈지만 갈 길이 멀다. 유출을 꺼리는 기술을 동남아 다가는 외국 세력에 안위를 위탁하다 물락한 조선 왕조처럼 망하기 십상이다. 우주기술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능력이다. 보이지 않지만,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론을 세우고 해결 기술을 찾아 기기를 제작하고 검증해야 한다.

우주탐험은 행성 탈출, 행성 간 이동, 행성 착륙, 행성 표면에서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과정에 에너지가 소요되므로 연료를 가득 싣고 발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료가 터지기도 한다. 지금의 발사 수준으로는 우주인과 관광객을 태우기 벅겁다. 사고는 거의

과학세상

정 연섭

한국원자력학회 사무총장



죽음으로 이어진다.

폭발하고 무거운 연료통을 없애는 방법으로 원자력 엔진도 대안이다. 1g의 우라늄은 석탄 3톤의 에너지를 낸다. 원자력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 여기까진 지구 표면에서의 원자력 발전소와 유사하다. 우주 공간과 지구 표면의 차이는 이동하는 방법에서 부각된다. 우주선이 이동하는 힘은 물질에서 나오며 원자력 우주선도 액체 수소를 데워 내뿜는 운동량으로 나아간다. 수소는 모든 분자 중 질량이 가장 가벼워 노즐 통로를 쭉쭉 뿔어 나가 추진 효율이 좋다. 수소를 이온화시켜 플라스마로 만들면 더 높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흙에서 우주선 추진력 얻는 생각도 가능

결국 수소통을 차고 다녀야 할 운명이니 먼 행성으로 여행은 글렀다. 그러나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깊은 우물에 빠져도 포기하지 않고 벽을 긁어내리면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 채워진 흙이 이동 단서다. 우주선의 추진력이 오직 질량에서 나온다면 행성의 흙도 추진제가 될 수 있다. 흙을 분말로 만들어 송풍기로 내뿜으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흙의 성분을 따질 이유도 없다.

새로 생긴 항공우주청 본부장에게 대통령급의 월급을 주기로 했다.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탐욕스러운 사회이지만 국가 과학기술을 위해 헌신적인 사람들은 늘 있는 법이다. 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목표를 세워나간다. 그 목표에 광물 확보 등 경제적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우주산업도 기대해 볼 만하다.

마음상담소

‘수다 떨기’에서 배운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원조전문가에게 상담 기술을 가르쳐 보면, 모두 매우 현란해 보이는 고급 상담 기술을 배우길 원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생시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를 넘어서는 비법은 없다.

이럴 때, 나는 ‘수다’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수다’란 ‘쓸데없이 많이 늘어놓는 말’이라고 나온다. 핵심 요소는 두 가지. 첫째, 아무런 쓸모나 득이 안 된다. 둘째, 많이 늘어놓는다. 그런데 이 사전적 정의에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가 빠졌다. 바로 비체계성. 우리는 친구를 만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고 편하게 수다를 떨어 대니, 어쩌면 비체계성이 가장 중요한 본질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수다는 전혀 비체계적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수다에는 몇 가지 뚜렷한 질서가 존재했다. 예컨대, ‘(수다를 떨 때는) 한 번에 한 명씩 이야

기하라’, ‘상대가 하는 말을 끊지 말라’, ‘혼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상대가 질문한다면 답하라’ 등 수다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그래서 대화 기술을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하라고 권하고 싶다. 첫째, 수다 떨 때는 말은 쓸데 없지 않다. 상대와 절묘하게 균형을 유지하며 주고받는,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다. 둘째, 주변 사람들과 수다 떨 때 거의 언제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그러나 가끔 빠져본다면 전혀 특별하지 않은) 나만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모든 다른 고급 기술처럼, 대화 기술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 기본 기술과 태도는 수다 떠는 기술과 태도와 상당 부분 겹친다.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설득 기술을 따르지 말고, 평소 수다를 떨 때 내가 즐겨 사용하면서 효과도 있는 기술을 떠올려 사용하라.

이재원 강점관점심리연구소장·임상사회사업가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l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40th

1984. 아날로그(AMPS) 차량전화 서비스 개시
1996.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화
1997. '스피드 011' 출시
1999. '스무 살의 011' TTL 출시

1984-2001



SPEED 011



2002-2010

2002. 신세기통신 합병
2002. 3G 상용화(CDMA2000 1x EV-DO)
2002. 'Be The Reds' 공동 캠페인 전개
2006. T 브랜드 출시

2011. 4G LTE 상용화
2012. 'SK하이닉스' 인수

2011-2018



4G LTETM
ORIGINAL

초[超]시대.
생활이 되다



SKT 5G

T B E

2019-2024

2019. 5G 상용화
2023. 나만의 AI 개인비서 'A.(에이닷)' 출시
2024. Global Telco AI Alliance 창립총회 개최

CDMA 상용화라는 커다란 성과보다
통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더 기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불리는 것보다
반도체의 나라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40년
우리는 늘 SK텔레콤이라는 이름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빛나길 바랐습니다

앞으로 40년도
글로벌 AI 컴퍼니 SK텔레콤으로서
AI 강국 대한민국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 telecom

A